

# 제물포 르네상스 균형발전 & 부흥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INCHEON MONTHLY MAGAZINE

굿모닝 인천

2023. 3. MARCH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6년 연속 수상

# 굿모닝 인천

2023 03 MARCH— vol.351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사진을



사진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날 무렵, 사진 찍는 것을 포기했다. 사진은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나는 몹시 방황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나서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다시 새로운 각오로 카메라를 들었다. 약삭스럽게 빛과 싸웠다. 빛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색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빛은 하늘이 준 영혼의 색이다. 대자연에 쏟아지는 그런 색을 가지고 그림보다 더 훌륭한 사진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게으르고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험과 집착 덕분에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나는 기교나 그 어떤 카메라 외의 도구를 사용해서 사진을 만드는 능력이 부족하다. 애당초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오직 카메라 하나만으로 빛의 영혼과 내 영혼을 버무려서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때그때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되도록 진실하게 접근해 나만의 사진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인지 항상 외로움과 고독함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게 내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 사진 만드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된다.

글·사진 최병관 사진가



표지 사진 인천 3.1운동 발상지인 인천창영초등학교와 봄꽃.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3년 3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유준호(공보관)  
**편집장** 김진국  
**편집위원** 정경숙·최은정  
**사진** 안영우·홍승훈·류창현·유승현·전재천  
**디자인·제작** 하나로에드컴

**발간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시 공보담당관실 032-440-8306



봄 냉잇국 같은 <굿모닝인천> 3월호

봄, 3월은 강화 고려산의 진달래처럼 3·1운동이 번진 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위기에 처했을 때 값진 희생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골목길 TMI'는 인천 3·1운동의 발상지를 걸어보았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먼저 '대한 독립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진 인천창영초등학교에서 시작해 쇠뿔고갯길을 걸으며 그 길을 먼저 걸었을 선조들을 생각했습니다. '더 인천'의 주제는 얼굴입니다. 인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인천의 생태계, 세계를 지키다'는 인천의 야생화를 탐구합니다. 멸종위기종인 대청부채, 강화매화마름, 정향풀 등 인천 야생화의 향기에 흠뻑 취해보십시오. 이번 호부터 '세계 초일류도시' 탐방을 시작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세계적인 도시를 들여다보며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봄 냉잇국 같은 <굿모닝인천> 3월호와 함께 활기 넘치는 3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CONTENTS

- |   |  |
|---|--|
| <b>04</b> 인천 미소<br>매달 깊이 있는 배움 外        | <b>42</b> 시정 뉴스<br>'제물포 르네상스'로<br>원도심 균형 발전 기대 外 |
| <b>05</b>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br>부평지하상가      | <b>46</b> 의회 뉴스<br>제6기 의정모니터 소양교육 실시 外           |
| <b>06</b> 더 인천 : 사람<br>③ 인천의 얼굴들        | <b>48</b> 인포 박스<br>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 外          |
| <b>12</b> 골목길 TMI<br>⑨ 쇠뿔고갯길            | <b>52</b> 문화 캘린더<br>문자 + 더하기 그림 外                |
| <b>18</b> 인천 오감 레시피<br>③ 연평도 꽃게 리소토     | <b>54</b> 컬러링 인천<br>청라성당                         |
| <b>22</b> 트렌드 인천 2023<br>③ 바야흐로 골목의 시대  | <b>56</b> 내가 보는 세상<br>인천시민의 시선                   |
| <b>26</b> 인천무형문화재와 차 한잔<br>정성길 단청장      | <b>57</b> 편집 후기<br>신선한 재료에 영혼을<br>버무려 만든 요리를 外   |
| <b>28</b> 인천의 생태계, 세계를 지키다<br>③ 인천의 야생화 | <b>58</b> 인천의 아침<br>팔미도등대 '120년 불빛'과의 대화         |
| <b>34</b> 세계 초일류도시를 가다<br>① 일본 요코하마     | <b>59</b> 한 컷 인천<br>봄길 그 바다                      |
| <b>38</b> 여행 줄인<br>팔미도로 떠나는 봄나들이        |  |
| <b>40</b> 문화 줄인<br>새얼 국악의 밤 30주년        |  |
| <b>41</b> 이미지 뉴스<br>코로나19 생활 방역 세부 수칙   |  |

읽어주는 <굿모닝인천>  
음성 지원 이북 바로가기



# 인천미소

—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 을 입력하세요.

www.facebook.com/incheon.gov



blog.naver.com/incheontogi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twitter.com/incheon\_gov



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천시 미디어'



www.instagram.com/incheon\_gov



www.weibo.com/incheon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 매달 깊이 있는 배움이 있는 〈굿모닝인천〉

〈굿모닝인천〉을 매달 잊지 않고 찾아보는 건 여느 매체와 달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시선이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명소, 숨겨진 이야기에 연신 감탄하곤 합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생긴다니 정말 반가웠고,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정족사고와 왕실 서적을 품었던 외규장각까지 또 한번 배웠습니다.

— 이선민 동구 서해대로

## 오늘 저녁은 맛있는 파스타

올해 〈굿모닝인천〉을 보면서 반가웠던 기사 중 하나는 바로 ‘인천 오감 레시피’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먹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돌게 하는 것 같습니다. 2월호에 실린 새우젓 볶동 파스타를 집에서 한번 도전해보았습니다. 어린이 입맛에 맞게 토마토소스를 추가해 익숙한 듯 새로운 맛을 냈습니다.

— 박경화 남동구 함박외로

## 노인을 위한 정보가 풍성해지길

매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이제는 노인 인구가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젊은이 못지않은 실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굿모닝인천〉에서 노인들이 더 활발히 활동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귀한 정보를 실어 주길 바랍니다.

— 김명준 연수구 청능대로

## 새 학년을 기다리며

새해는 마음의 준비를 할 겨를도 없이 갑작스레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이 되어 아이들이 새 학년으로 접어들면, 그제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음을 실감하곤 합니다. 2월호 〈굿모닝인천〉에 실린 ‘슬기로운 방학 생활’ 기사를 읽고 아이들과 인천어린이과학관을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 강지연 부평구 장제로



## 부평지하상가

## 추억은 새록새록 지하도를 타고

글 권희정(부평구 부평대로)



인천에서 나고 자란 사람에게 부평지하상가는 추억의 보물창고 같은 곳이다. 학창 시절 시험이 끝나고 나면 친구들과 재미있는 일을 찾아 배회하던 곳이자, 누군가를 설레며 기다리던 곳이기도 하고, 용돈이 생기면 반드시 찾는 곳이기도 했다. 그 시절 유행하는 패션은 여기 다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부평지하상가는 나에게 놀이터이자 백화점이고, 휴식이고 기쁨이었다.

한동안 참새 방앗간처럼 쪼다닌 덕분에 나는 복잡하기로 소문난 이곳의 지리를 훤히 꿰고 있었다. 이 모퉁이를 돌면 맛있는 쫄면을 먹을 수 있고, 저 모퉁이를 돌면 입담 좋은 옷가게 주인이 있고, 그런 식으로 지리적 위치와 각 점포의 상황이 머릿속에 정확히 그려졌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발걸음이 서서히 멀어졌다. 부평을 중심으로 한 나의 생활 반경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넓어지기도 했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쇼핑을 하면서 부평지하상가는 ‘상가’라기보다는 ‘지하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나는 다시 부평지하상가에 들르기 시작했다. 퇴근하고 허기진 몸과 마음으로 터덜터덜 걷다가 발견한 기가 막힌 핫바로 속을 달래고, 1만 원 안팎의 저렴한 액세서리를 고르는 재미를 만끽하고 싶어서다. 사실 가장 좋은 건,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풍경과 분위기다. 긴 시간이 지나도 여전한 복닥거림이 있어 좋다. 말끔하고 세련된 곳이라면 한 번 가면 그만인데, 여기는 웬지 모르게 정이 가고 궁금해진다. 누군가는 길이 미로처럼 엉켜 있어 출구를 찾기 너무 어렵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브랜드 매장도 아닌데 가격이 비싸다고 투덜거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바빠 오가는 인파 속에서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안심도 되고, 작고 귀여운 소품을 구경하다 보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어느새 잊히고 만다. 아마도 나의 퇴근길 부평지하상가 순례는 앞으로도 쭉 계속될 듯하다.



홍성선, 최윤서  
최에릭, 최마리안나  
다비드, 오지은



보다, 우리의 얼굴



‘더(The) 인천’을 더(More) 알아가다. 지금 발 딛고 선 도시, 살아가는 동네, 그 안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인천 곳곳에 깃든 인천 사람 저마다의 삶과 기억, 숨은 이야기를 찾아 기록한다. 이번 호에는 인천의 얼굴들을 만난다. 바로 나와 너, 우리의 얼굴이다.

오늘, 나는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누구를 어떤 표정으로 마주하는가. 때로 슬픈 날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웃음’이란 가면을 써야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민낯 그대로의 ‘진정한 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다. ‘나의 얼굴’이지만 오롯이 마주할 수 없다. 그 얼굴에 우리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살아간다. 얼굴은 곧 삶이고 인생이다. 살아온 날과 살아가는 시간이 고스란히 쌓이고 쌓여간다. 순간순간 가속도가 붙는 인생의 흐름 속에 자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느 날 거울 속에 아름다운 얼굴 하나가 떠오를 것이다.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로 남는다. 이 순간, 인천 안에서 ‘진정한 나’로 묵묵히 살아가는 얼굴들과 마주한다. 다른 듯 닮은, 네가 아닌 나, 우리 모두일 수 있는 그 얼굴을.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류창현 포토 디렉터

얼굴



훗날 누군가의 모습일 수도 있을 그 얼굴.  
 “쭈글쭈글하니 못생겼지? 그래도 젊어서는  
 내 인물이 참 고왔는데.”  
 할머니가 수줍게 웃는다. 누구에게나 화양연화는 있다.  
 나이테 같은 주름으로 뒤덮인 얼굴에  
 봄 처녀 같은 화색이 돈다.

## 홍성선

홍성선(79) 할머니는 스물셋에 충청도에서 인천으로 시집왔다. 바로 이 자리다. 한 3년 있다 동네 쪽으로 학교 문이 났다. 집마다 방을 허물고 가게 문을 열었다. 할아버지 문구사, 큰 문구사,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분식집..., 대여섯 가게가 줄지어 들어섰다. 1970년대 당시 영문고 간판에는 ‘어린이의 단골’, ‘대한문구사’라고 새겨 있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만물상 같던 문방구. 오전·오후반이 끝나면 까르르 웃음소리를 내며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때가 재미있었지.” 창영초등학교 학생은 지난해 기준 단 181명. 얼마 전까지 학교를 다른 동네로 옮긴다는 말로 술렁였다.

“쭈글쭈글하니 못생겼지? 나이 드니 사진이 그렇게 안 나오네. 젊어서는 내 인물이 참 고왔는데.” 할머니가 수줍게 웃는다. ‘화양연화<sup>花樣年華</sup>’,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찬란하고 화려한 시절은 있었다. 나이테 같은 주름으로 뒤덮인 얼굴에 봄 처녀 같은 화색이 돈다. 저세상으로 먼저 간 남편이 남긴 화초에, 얼마 전 고운 빛꽃봉오리가 피어올랐다.

이맘때면, 문득 떠오르는 추억 하나.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날, 반짝반짝 윤기 나는 노트와 새 책가방을 머리맡에 두고 잠들던 밤. 문방구 앞을 서성이며 나만의 보물찾기를 하던 오후의 하룻길. 그날의 설렘은 여전히 오래된 골목에 머물러 있다. 동구 인천창영초등학교 앞에 하나뿐인 문방구. “400원짜리 세 개에다 2,400원짜리 하나면 얼마지?”, “3,600원이에요.” 돈 계산을 주인 아닌 손님이 한다. 그새 가격을 잊었다. “얼마라고 했지? 얼마 거슬러 주면 돼?” 주인장의 주름진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진다. 이날 문방구를 찾은 동산고등학교 학생들은 창영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이 집 단골이었다. 이제 어른이 될 아이들보다 ‘어른이 된 아이들’이 아들, 딸 손 붙잡고 찾아와 안부를 묻곤 한다.

고양이를 닮은 그 얼굴. 다소 창백한 피부에 깊은 눈매, 눈동자는 풍부한 암갈색이다. 눈빛은 강렬하다. “춤으로 무언가를 꼭 이뤄낼 거예요.” 이 거대한 세상을 움직일 꿈이 오밀조밀 작은 얼굴에서 움트고 있다.



## 최윤서

165cm 키에 46kg 몸무게. 가녀린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압도적이다. 이제 만으로 갓 스무 살이 된 최윤서는 거리에서 춤을 추는 댄서다. 댄서 네임은 샴<sup>Siam</sup>. 몸이 늘씬하고 유연하며 상아색 털빛을 내는 샴고양이와 이름처럼 닮았다.

“안녕하세요. 춤추는 최윤서입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춤을 추고, 춤을 추고서야 자유로워졌다. 그는 소래, 짠 내 가득한 풍경 안에서 나고, 바다의 들숨과 날숨에 호흡을 맞추며 살아왔다. 그에게 있어 바다는 곧 자유다. “바다는 넓고, 파랑고, 밀려드는 소리도 좋아요.” 언젠가는 영종도 바닷가에서 밤부터 늦은 새벽까지 친구들과 춤을 췄다. 기분 좋게 찰찰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이었다. 그날의 공기, 온도, 습도, 자유로운 분위기가 지금도 살갗에 닿듯 생생하다. 나이가 몇인지, 어떤 집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춤추는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중요하지 않다. 그저 자유, 몸짓 하나하나에 가슴이 가득 차오른다.

오늘은 ‘제물포 르네상스’의 꿈이 빛나는 인천 내항 앞바다가 그의 무대다. 10m 조수 간만의 차를 극복하고 열린 바닷길, 인천의 새로운 미래가 그 바다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인생이란 무대에 ‘댄서 샴’으로 당당하게 오를 거예요.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반드시 이뤄낼 거예요”. 그 삶의 좌표는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 살다 보면 젊은 날의 나는 잊어버린다. 언제부터인가 꿈에 한계선을 긋고, 타협하고, 단념해 버리기가 더 쉽다는 것을 알아버렸다. 하나 청춘들은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자신의 꿈을 내려놓지 않는다. 순수와 열정의 시절을 지나, 살면서 때로 실패하고 무너지며 다짐을 놓지는 않았는가. 그렇다고 해도 괜찮다. 꿈은 언제든 다시 꾸고, 또 이룰 수 있으니.



우리와 닮은 듯 다른, 다른 듯 닮은 그 얼굴.  
누군가는 태어난 나라에서도, 찾아온 아버지의 땅에서도 평생을 이방인처럼 살아야만 한다.  
마음속에 자신만의 지도를 그리고, 그리움을 간직한 채.



파란 눈, 흰 피부의 얼굴을 한 인천 사람.  
“나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색다르고 특별하고  
재미있는 ‘이상한’ 사람. 토박이인 아내보다  
인천을 더 잘 알고, 그 못지않게 인천을 사랑하는  
‘이상한’ 사람.

오지은,  
다비드



“봉주르 bonjour” 보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자연스럽다. 파란 눈, 흰 피부의 다비드David는  
자신을 ‘인천 사람’ 아니 ‘연수 사람’이라고 말  
한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아내의 나라에 머물  
러 살고 있다. 어느덧 50대, 인생의 절반을 살  
았다. 그 전 삶의 반은 프랑스에서, 반은 중국  
에서 보냈으니 한국에서 살아보기로 했다. 긴  
시간 집을 떠나야만 했던 아내를 위해, 두 아들  
을 위해, 새로운 삶을 꿈꾸는 그 자신을 위해.  
17년 전, 인천으로 올 때 다섯 살이던 큰아들은  
지금 군대에 있다. 이제 막 흑한기 훈련을 마쳤  
다며 부부가 싱긋이 웃는다. 인천중앙초등학  
교 옆 담 너머 1층 집, 준비물을 잊었거나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이 ‘엄마~’ 하고 부르곤 했다.  
동네 아이들의 아지트였던 집은 이웃들이 놀  
이방으로 오해할 만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  
았다. 남들은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고 산다는  
아파트였다. 살면서 호기심 어린 눈빛도 받았  
지만, 다른 게 사실이니 뭐, 어떠한가. 두 아들  
은 ‘양키’, ‘치즈’라고 불릴 때면 ‘씨익’ 웃고는  
치즈가 그려진 티셔츠를 꺼내 입었다.

돌아보면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일상을 흔드는  
미세한 파장조차 없이, 하루하루가 꽤 괜찮았  
다. 좋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 그  
리고 오래된 친구예요.” “살다 보면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반드시 와요. 하지만 다 지나가  
죠. 곁에 ‘사람’만 있다면.” 서로를 ‘완벽한 팀’  
이라고 이르는 부부는, 살면서 가장 먼저 두는  
삶의 가치도 한마음이다.

가끔은 프랑스 남부 지방의 완벽한 기온이 그  
립기도 하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첫눈에 반한  
모습 그대로 ‘웃는 얼굴’의 아내가 있다. 그 미  
소가 고향에 비추던 ‘봄날의 햇살’ 같다. 봄이  
무르익으면, 아내 손을 잡고 공원에서 ‘페탕크  
petanque (프랑스 남부에서 기원한 구기 스포츠)’  
를 한판 벌여야겠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이  
웃’과 봄날의 소풍을 즐겨야겠다.

최에릭(69)은 고려인 3세대. 22년 전, 돈을 벌기 위해서 아내와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에서 한국으로 왔다. 그에게 허락된 업은 우리가 힘들다고 기피해 온 일이 대부분이  
었다. 식당 허드렛일, 쓰레기 처리, 공사장 일용직을 전전했다. 충북 음성에 있는 공  
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 손가락 한 마디를 잃기도 했다. 할아버지  
가 한평생을 하루처럼 그리워하던 고향 땅은, 그에게 따듯하지만은 않았다.  
2017년에 인천으로 왔다. 큰딸 최마리안나(45)와 둘째 딸 최나제지다(43), 막내아  
들 최예프게니(35), 온 가족이 연수구 함박마을에 모여 살았다. 1년 후 타지키스탄  
Tajikistan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 일을 하던 큰딸 최마리안나가 ‘CIS 선교비전센  
터’를 열었다. 처음엔 어린이들을 돌보는 작은 선교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초중고  
190명 학생을 품은 ‘글로벌아상호문화대안학교’로 성장했다.  
“우리 아이들은 집과 친구들을 남겨둔 채, 부모를 따라서 이 땅으로 왔어요.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꿈을 키우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야죠.” 이른 새벽  
부터 늦은 밤까지 학교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멀고 먼 길을 떠돌며 ‘백년 나그네’로 살아온 고려인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는 곳  
이라고 여겼던 아버지의 고향 땅이지만, 다시 돌아온 한국도 낯설기는 마찬가지다.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지평선이 아득히 펼쳐진 광활한 대지가, 바다와 같은  
호수가 문득 그림기도 하다. 그런데도 결코 떠날 수 없다.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 땅  
에서 살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고향은 그런 존재다.

최에릭,  
최마리안나





©홍승훈

제물포항에서 서울 가던 옛 경인가도(京仁街道), 일제강점기 민족의 앞날을 밝힌 길, 지난 한 세기 공동체를 따스히 품은 비탈길이 새 시대의 질문 앞에 놓였다. 2022년 여름, 재개발로 철거되고 있는 쇠뿔고개의 마을.

## 아름다운 그리움, 쇠뿔고개

골목을 걷는 것은 동시대를 기억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이다. 그 안에 우리네 삶의 오늘과 내일, 어제가 있다. ‘골목길 TMI’는 골목의 새로운 변화와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다. 이번 호에는 배다리에서 도원역 뒤편 언덕으로 이어지는 ‘쇠뿔고갯길’을 거닐었다. 비탈진 그 길엔 굴곡진 근대사를 교육과 자립의 열망으로 살아낸 인천시민들의 정신이 맥맥이 이어지고 있었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유승현 포토 디렉터 | 도움말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학예연구관



116년의 역사가 깃든 창영초의 옛 학교 명패(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16호로 지정된 옛 교사(아래)

### “100년 넘게 이어진 교육 열망, 창영초”

‘인천창영초등학교’는 인천 최초로 조선 어린이들을 가르치고자 1907년 ‘인천공립보통학교’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된 옛 교사(校舍) 앞에는 햇불 모양의 ‘3·1독립만세운동 인천지역 발상지 기념비’가 웅장하게 서 있다. 1919년 3월 6일 정오, 인천 3·1운동의 불씨가 교정에서 타올랐다. 상급반 학생들이 만세의 첫 깃발을 올렸다. 그들은 어느 단체의 지령이나 누구의 지시도 없이 자발적으로 항일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대한 독립 만세!” 목이 터져라 외친 피맺힌 함성은 배다리, 동인천역 부근 채미전 거리 등 시내로 퍼져 나갔다. 학생들은 시민들에게 독립선언문을 배포하며 궤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116년 역사가 깃든 배움터는 우리 민족의 교육열과 자립의 열망을 보여준다. 2부제로 수업을 나눌 만큼 배움에 목마른 아이가 많았다. 갈수록 학생 수가 많아져, 1970년대 전교생은 6,000 명을 웃돌았다. 미술사를 처음 학문으로 승화한 우현 고유섭, 인천시립박물관 초대 관장 이경성, 전 대법원장 조진만, ‘그리운 금강산’ 작곡자 최영섭, 수류탄을 몸으로 덮쳐 부하들을 살린 강재구 소령, 프로야구 류현진 선수 등이 창영초가 배출한 인물들이다.

📍 인천창영초등학교 동구 우각로15번길 16

### “조선 민중을 밝힌 근대 교육, 종교의 길”

1883년 1월 인천항 개항 이후 서양 기독교 선교사들은 종파를 막론하고 순교의 피가 서린 인천에 자리를 잡았다. 그중 감리교회는 인천 동구 우각로 일대를 기점으로 교세를 확장했다. 인천에 스며든 종교의 이정표적 건물들이 나지막한 언덕길을 따라 이어진다. 창영초에서 담 하나 건너면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초등학교인 영화초등학교와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가 나온다. 미국 감리회 선교사 G.H 존스가 1893년에 세웠다. 그 옆엔 창영감리교회가 나란히 서 있다. ‘에즈베리 동산’으로 불리는 교회 뒤편 언덕에는 감리교 여선교사 기숙사가 감춰져 있다. 남선교사 합숙소는 1955년 신설된 인천세무서 청사로 개축되었다.

📍 영화초·영화국제관광고 동구 우각로 39

📍 창영감리교회 동구 우각로 43



영화학교 옆에 우뚝 서있는 창영감리교회.  
우각로는 근대 교육과 종교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다.





옛 아벨서점 자리에서 만난 곽현숙 대표.  
1970년대엔 배다리 철교부터 창영초, 영화초 앞까지 책방이 성업했다.

“3월이면 학생들로 넘쳐나던 책방 거리의 봄”

1970~1980년대 이 일대는 학생들로 넘쳐났다. 새 학기만 되면 까까머리, 단발머리 남녀 학생들이 새카맣게 모여들었다. <수학의 정석>, <성문종합영어> 같은 학습 교재는 물론이고 교과서도 활발히 거래됐다. 지금의 헌책방 거리 뿐 아니라 창영초, 영화초 앞까지 크고 작은 서점이 성업했다. 국제서림, 한미서점, 평화서점, 학생서림…, 1969년 판 <인천상공명감>에 기재돼 있는 책방만 26개에 이를 정도. 터줏대감 ‘아벨서점’이 처음 책방을 연 곳도 창영종합사회복지관 맞은편 자리였다. 지금은 카페로 변했다. 곽현숙(73) 대표는 이맘때면 자박자박 발걸음 소리가 아련하다. “10년 전까지도 학생이 많았어요. 철교 앞 우각로와 금곡로 입구로는 중구 쪽 학교의 학생들이, 동구청길과 세무서길로는 도화동 학생들이 무리 지어 들어섰죠.”

오늘 책방 거리는 철교 앞 한곳으로 좁혀졌다. 교재로 뻘뻘 하던 책방엔 새로움이 꽃혀간다. 애들 참고서 사러 오던 어른들이 자신들을 위한 책을 사러 온다. 이 길을 평생 지킨 곽 대표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여미는 아름다움을 매일 본다.

- ☉ **커피내리는고양**(옛 아벨서점 자리) 동구 우각로 58 1층 | 032-773-0725
- ☉ **아벨서점** 동구 금곡로 5-1 | 032-766-9523

“영화학교 앞 노부부의 문구점”

부부가 인천에 온 건 45년 전. 영화학교 정문 앞, 명당에 자리 잡았다. 워낙 바지런해 문방구 안팎은 언제나 반질반질 윤이 났다. 아이들이 우르르 떼로 몰려들어 도 물건이 한눈에 보이니 ‘칙’하면 ‘착’하고 찾는 물건을 내주었다. “나이 들어서 예전만 못해.” 말은 그렇게 해도 할머니의 오래된 문방구는 여전히 정갈하다.

“예전엔 재미났지. 새 학기, 운동회, 졸업식 때 학용품이 최고의 선물이었으니까. 지금은 학생 수도 줄고, 문방구도 학교 앞에 하나씩밖에 안 남았어.” 개학이 코앞인데도 거리가 한산하다. 그래도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열어둔다. “졸업생들이 계속 찾아와. 다들 어른이 돼서 나는 못 알아보는데, 기억하고 오면 반갑지.” 이젠 모두 빛바랜 추억이지만, 그 시절을 기억하는 단골들이 있어 노부부는 외롭지 않다.

- ☉ **영화문구사** 동구 우각로 40 | 032-773-5011



영화학교 정문 앞 문방구, 영화문구사의 주인.  
빛바랜 추억이지만 그 시절을 기억하는 단골들이 있어 외롭지 않다.



배다리와 쇠뿔고개 사이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창영당.  
조은숙 작가와 주민들이 마을 이야기를 담은 ‘15분 연극제’를 준비 중이다.

“마을의 열린 공간, 이야기가 머무는 곳”

우각로 6번지. ‘창영당’은 동화구연가이자 시인, 연극배우인 조은숙(55) 작가가 꾸민 공간이다. 지난 2017년 마을과 사람들이 좋아 정착했다. ‘이야기 가게’라는 부제를 단 이곳에서 조 작가는 초등학생부터 90세 어르신까지 이웃 모두에게 공간을 활짝 열고, 이야기를 만들어나간다.

“작년에 창영초 아이들과 <금창동 동네 한바퀴>, 어르신들과는 <창영동, 풀꽃들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책을 만들었어요. 휴대폰 속 사진 한 장을 열고 시를 한 번 써보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올해는 거리로 나와 연극을 올리는 ‘15분 연극제’에 마을 사람들과 참여할 계획이다. 아이스끼끼집 창영당, 배다리 성냥공장 등 마을 이야기를 담아낸다. ‘어지간히 흥년이 들더라도/ 우리들 가난한 사랑은 배고프지 않다/ 더는 허기지지 않게/ 쌀 알 같은 이야기들 한 뒷박식 꺼내/찬밥을 남기지 않을 정도의 먹을 만큼만 뜬다… (배다리, 조은숙 作)’라고 마을을 노래한 조 작가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척 기대된다.

- ☉ **창영당** 동구 우각로 6 | 010-8286-4889

“실크스크린의 역사는 살아 있다”

상패, 냉장고 자석, 현수막으로 만든 에코백…, 사회적기업 ‘쇠뿔’에는 기념품들이 느긋하게 햇볕을 쬔고 있다. 예전처럼 찾는 이가 많지 않다. 스무 살에 인천에 올라와 평생 이 길을 지킨 최현모(62) 대표는 실크스크린 가게가 하나둘 사라지는 모습이 못내 아쉽다. “1980년대까지도 이 거리에 실크스크린 가게가 즐비했어요. 인쇄 역사가 있는 거리입니다.” 최 대표는 올봄 실크스크린 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 ☉ **주식회사 쇠뿔** 동구 우각로 46 | 032-761-5678



거리 이름을 달고 있는 ‘주식회사 쇠뿔’.  
상패, 냉장고 자석, 에코백 등 기념품이 느긋하게 햇볕을 쬔고 있다.



“남들에겐 낡고 오래된 이곳이 홍물로 보이겠지만, 역사와 서민의 삶이 묻어 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속도가 느린 건데, 골목 하나 남겨 두면 안 됐을까요” - 김종선, 우각로 문화마을 입주 작가

“이 길엔 굴곡진 근대사를 교육과 자립의 열망으로 살아낸 시민들의 정신이 맥맥이 흐릅니다. 배고프고 남루한 시절에도, 시민들의 눈빛은 늘 반짝였습니다.” - 곽현숙, 아벨서점 대표

현재 미추홀구 송의동 109번지 일원에선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500여 채 주택이 철거되고 아파트 숲이 들어선다.



재개발로 곧 허물어질 누군가의 오래된 삶터. 미담이 곧 길이 되고, 네 것 내 것이 따로 없는 한 뼘 앞마당에서 주민들은 서로 기대어 살았다.



재개발로 곧 허물어질 누군가의 오래된 삶터. 미담이 곧 길이 되고, 네 것 내 것이 따로 없는 한 뼘 앞마당에서 주민들은 서로 기대어 살았다.



©홍승훈

2022년 여름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 지역의 모습. 비탈을 감아내리며 다닥다닥 붙어 있던 500여 채 집이 헐리고 '전도관'도 철거를 기다리고 있다.



2023년 2월, 민동산만 남은 쇠뿔고개에 오른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학예연구관. 송의동 109~119번지 일대에 임대 88가구를 포함해 1,700여 가구의 대형 아파트가 들어선다.

“인천의 마지막 달동네, 전도관 일대”

인천세무서를 지나면 쇠뿔고갯길은 좁고 가팔라진다. 1883년 개항을 거치며 일본인들이 몰려들어 지내던 개항장 지역과 달리 이곳은 변두리로 밀려난 조선인들이 주로 살던 곳이었다. 오늘날엔 비탈진 골목에 낡고 오래된 집이 다닥다닥 붙어살아 ‘인천의 달동네’로 불렸다. 달동네 꼭대기에 우뚝 솟은 ‘전도관’은 한때 인천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인천의 랜드마크였다. 주인은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었다. 그 곳에는 원래 초대 주한 미국 공사를 지낸 알렌의 여름 별장이 있었다. 이후 계명학원, 대학교 분교 등으로 쓰이다가 1957년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가 건물을 헐고 전도관을 세웠다. 1978년 전도관은 이곳을 떠났다.

쇠락해 가던 마을에 ‘우각로 문화마을 사업’이 추진돼 생기가 돌았던 적도 있다. 예술가들이 동네 언덕으로 올라와 텅 빈 집과 쓰러져 가는 담벼락, 황량한 콘크리트 계단에 알록달록 고운 색을 칠했다. 그렇게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해 20명의 예술인이 마을 주민이 되었다. 빈집이 공예방으로, 영화 제작소로, 작은 도서관으로, 게스트 하우스로 변신했다. 김종선(60) 작가는 전도관이 철거되기 직전, 마을을 나왔다. “남들에겐 낡고 오래된 이곳이 홍물로 보이겠지만, 역사와 서민의 삶이 묻어 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속도가 느린 건데, 골목 하나 남겨 두면 안 되었을까요.”

현재 미추홀구 송의동 109번지 일원에선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500여 채 주택이 철거되고 아파트 숲이 들어선다. 배성수(54) 인천시립박물관 학예연구관과 들어간 펜스 안엔 풀 한 포기 없는 민동산만 남아 있었다. 세월을 삼킨 황토는 말이 없다. 2023년 2월, 갑자기 찾아 온 꽃샘추위에 코끝이 시리다.







온몸의 감각을 열고 인천을 오롯이 음미한다. 인천의 고유한 먹거리와 정성 어린 손맛으로 완성하는 인천 오감 만족 레시피. 이번 요리는 ‘연평도 꽃게 리소토’다. 봄 결처럼 보드라운 꽃게 속살을 싱그럽게 버무린 한 그릇. 겨우내 무더진 입맛이 확 되살아난다. 인천 내향 앞, ‘가장 인천다운’ 풍경 한가운데 있는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에서 함께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전재천 포토 디렉터  
요리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 | 스타일링 강지인·김예진

‘제물포 르네상스’의 꿈이 넘실대는 ‘인천 내향’,  
그 푸른 물결 앞에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이 있다.  
그 안에서 꿈 한 스푼 바다 두 스푼, ‘인천의 맛’을 즐긴다.



인천 내향과 개항장을 품은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왼쪽)  
최원균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 조리팀 팀장(오른쪽)

### 꿈 한 스푼, 바다 두 스푼

‘제물포 르네상스’의 꿈이 넘실거리는 ‘인천 내향’. 그 푸른 물결 앞에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이 있다. ‘가장 인천다운’ 풍경 한가운데 있는 이 호텔에 가면 가슴에 와락 인천이 달려든다. 안정웅(57)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 식음팀 팀장은 “‘인천, 참 멋진 도시다. 인천을 여행하고 머물길 잘했다’라고 손님들이 건네는 한마디가 ‘행복이고 자부심’이다”라고 말한다.

최원균(47)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 셰프가 제안하는 메뉴는 ‘연평도 꽃게 리소토’다. ‘최상의 식재료로 최상의 요리를 만드는 것’이 그의 엄격한 요리 철학. 특히 해산물 요리는 식재료가 얼마나 신선한가에서 그 맛이 판가를 난다.

꽃게가 제철을 맞았다. 꽃게는 봄, 알을 낳기 전에 잡은 암게가 실하고 그 맛이 절정에 이른다. 봄 꽃게의 조업 시기는 산란기를 피한 4-6월. 요즘은 저장 기술이 발달해서 어느 때라도 꽃게를 맛볼 수 있지만, 제철의 맛을 따라올 수는 없다. 싱싱한 꽃게는 단맛이 강하고 짭조름한 바다의 풍미가 깊고 진하다. 또 살결이 탱글탱글하면서도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린다. 연평도 꽃게가 특히 그렇다. 꽃게는 서해 전역에서 잡히는데, 그 절반가량이 인천 연해에서 난다. 북방한계선(NLL)과 맞닿은 연평어장이 주산지. 수심이 얇고 물살이 빨라서 꽃게 살이 더 단단하고 달다고 뱃사람들은 말한다.

꽃게는 밀물이 가장 높은 사리 때 많이 잡히니, 다음 달 달력에 미리 동그라미를 쳐놓자. 연평도 바다에서 알이 짹짹 들어찬 암게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 중구 제물량로 217(항동 3가 5) 인천관광공사 하버파크호텔 ☎ 032-770-9500





하버파크호텔에서 선보이는 와인 '개항시대 1883'

### 봄 향 바다 향 물씬한, 3월의 식탁

두근두근, 햇살로 바람으로 향기로, 봄이 밀려온다. 여기서 '톡', 저기서 '톡' 만물의 기운이 움트는 봄은 셰프들에게 영감을 주는 계절이다. 촉촉하게 물오른 해산물에 향기로운 허브를 곁들여 정성껏 차린 3월의 식탁. 바라만 봐도 봄의 싱그러움이 물씬 풍긴다.

꽃게는 찜으로 탕으로 어떻게 만들어 먹어도 맛이 그만이다. 집밥 식재료로 사랑받는 꽃게로 이탈리아 요리 리소토를 완성했다. 접시 위에 꽃게를 톡 하고 올리니 바다의 풍미가 물씬. 단단한 껍질 속에 감춰졌던 게의 속살이 감칠맛을 내며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호텔 4층에 있는 '하버레스토랑'에서는 하늘과 바다의 파노라마 뷰를 감상하며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대청도 홍어 스테이크', '영흥도 바지락 파스타', '서해 5도 해초 비빔밥' 등 정성스레 차린 '인천의 맛' 메뉴도 반갑다. 봄맞이 프로모션으로 인천산 젓갈과 반건조 생선구이, 봄나물도 선보인다. 입안에 머금고 음미하는 순간, 감탄사가 절로 난다. "아, 인천의 맛이 로구나!"



'톡', '톡'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기운이 물씬~  
보드레한 꽃게 속살을 싱그럽게 버무린 한 그릇



**주재료** 꽃게 1마리, 쌀 50g, 양파 1/5개, 마늘 2쪽, 바질 1쪽, 피자 치즈 20g, 흰 살 생선 50g, 소금·후추 약간씩  
**소스 재료** 생크림 100ml, 토마토 페스토 10g, 고추기름 5g, 올리브유 5g, 다진 마늘 1큰술

### '연평도 꽃게 리소토' 레시피

'시민 셰프'를 위한 '인천 오감 레시피'. 여기,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 셰프만의 비법이 담긴 특급 레시피를 선보인다. 정성을 담아 요리하면 별 다섯 개 미쉐린 메뉴도 부럽지 않다. 오감을 사로잡고 마음까지 든든히 채워주는 맛. 오늘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을 풍성하고 따뜻하게 채우자.

※ QR코드를 스캔하면 요리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리 영상 보기



#### 만들기

- ① 생선을 물에 넣고 끓이다가 소금, 후추를 가미해 스톡(국물)을 만든다.
- ② 스톡에 쌀을 넣고 볶다가 약불에 15분간 끓인다.
- ③ 프라이팬에 양파와 마늘을 볶다가 ②의 쌀을 넣고 한 번 더 볶는다.
- ④ 다 볶은 쌀에 소스 재료를 넣고 약불에 볶다가 꽃게 살을 추가한다.
- ⑤ ④를 게딱지에 올리고 피자 치즈를 얹어 170℃로 예열한 오븐에 15분간 굽는다.
- ⑥ 바질을 올려 장식해 낸다.

#### '시민 셰프'를 위한 요리 Tip

여기서 잠깐! '시민 셰프'를 위한 요리 팁을 공개한다. 요리 중간중간 불 세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관건. 스톡은 은근하게 오래 끓일수록 깊은 맛이 우러난다. 해산물도 약한 불에 오래 볶아야 고유의 감칠맛이 산다. 마늘은 강불에 '치지직' 소리가 나게 볶아야 특유의 풍미를 끌어올릴 수 있다. 팬을 충분히 달구면 온도를 올리기가 수월하다.



## 바야흐로, 골목의 시대



개항로의 작은 백화점, 개항백화

골목 경제, 골목 도보 여행, 골목 벽화..., 바야흐로 골목의 시대다. 구불구불 비탈진 골목으로 발길이 이어지고, 젊은이들은 ‘서울 출세’보다 ‘로컬이 대세’라며 원도심의 오래된 골목에 자신만의 아지트를 배짱 좋게 세운다.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교수는 “경험에 기반한 오프라인 상권의 미래가 바로 골목상권”이라며 “개성 있는 골목이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인천에는 몇 개의 골목이 남아있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몇 개의 골목길을 걸었을까. 이번 호에는 골목에서 저마다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유승현 포토 디렉터

### 개항백화

#### 인천 로컬의 자존심, 개항로

인천 원도심이 꿈틀댄다. 녹진한 추억과 ‘힙’하고 ‘핫’한 건물이 한데 뒤섞인 풍경이 오감을 자극한다.

화려했던 번성기를 뒤로하고 흑백사진처럼 바래가던 골목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건 청년들이었다. 지난 2017년부터 이창길(45) 대표를 중심으로 ‘개항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수십 명의 청춘이 ‘원도심 이주’를 감행했다. 최주영(31) 대표도 그중 한 명. 방송사 프로듀서 일을 접고, 지난해 봄 원도심 한복판에 로컬 백화점을 열었다. 오랫동안 비어 있던 공간을 젊은 감각으로 ‘새로고침’하고, 로컬 브랜드로 채웠다.

공간 이름은 ‘개항백화’. 와인 숍 ‘포트포인트’, 향수 숍 ‘발로’, 뜨개질 브랜드 ‘땡스’, 개항로의 테일러 플랫폼 ‘트렌디션’ 등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개항로의 작은 백화점입니다. 100가지 물건을 팔지는 않지만, 100가지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개인의 가치관과 열망, 라이프스타일이 녹아든 제품을 소개합니다.”

최 대표는 개항로의 힘은 사람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개항로의 다채로움은 주인장들의 독심과 개성에서 발현한다고. 국내 유일의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골목상권 주인장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칭한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에서 지역 자원, 문화, 커뮤니티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소상공인을 말한다. 가게 주인이지만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예술가에 가까운 친구가 많다”고 설명했다. 여지없이 개항로 사람들 이야기다.

바야흐로 설레는 봄. 개항로에서 영감을 충전하고 먹고 즐기며 한 템포 쉬어가면 어떨까. 잠재된 취향과 감각을 일깨워줄 ‘로컬’이 우리를 기다린다.

개항로의 다채로움은 주인장들의 독심과 개성에서 발현한다.  
음악과 햇살, 로컬 브랜드로 맞춤형 채워진 개항백화의 한낫 풍경



최주영 대표. 지난해 봄, 프로듀서 일을 접고 원도심 한복판에 로컬 백화점을 열었다.





개항도시

골목길 걷기, ‘유행’이 아닌 ‘시대’로

지난해 여름, 짜리재 언덕에 ‘복합문화공간, 개항도시’가 들어섰다. 골목의 주인처럼 ‘개항도시’란 이름을 달고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늠름하다. 내부는 책마을, 커피마을, 청자마을로 꾸며져 있다. 주인장 최석호(59) 교수는 일주일에 사나흘 이곳으로 출근한다. 일터가 140년 개항의 역사가 흐르는 개항로에 있다보니, 골목길 걷기로 일과를 시작하는 호사를 누린다.

“장광 선생님께서 ‘장안과의원’을 했던 자리입니다. 길병원에서 안과 과장을 하셨고, 부친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안과의를 하신 집안입니다. 당시엔 이 골목이 사람끼리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는 지나다니지 못했던 대로입니다.” 최 교수의 설명에 북적이던 개항 도시의 옛 모습이 그려진다.

최석호 교수는 전국의 골목길을 걸으며 역사를 연구하고, <골목길 역사산책> 시리즈, <골목길 근대사> 등을 집필했다. “15년 전부터 골목길 산책을 시작했어요. 시대가 퇴적층처럼 쌓인 골목길 어귀에서 한국인의 자긍심을 느낍니다.”

자연스럽게 골목길 도보 여행 예찬론자가 됐다. 그가 개항로에 아지트를 세운 건 어쩌면 당연한 일. 신포동에서 오르는 낡은 층층 계단, 성공회 교회의 붉은 지붕과 어우러진 벽돌담 길, 아슬아슬 홍예문 윗길, 자유공원 광장으로 이어진 비탈 길길…. 원도심의 고즈넉한 골목길을 좋아한다.

올봄부터 인천 사람들과 골목길 도보 여행을 함께할 계획이다. “‘도보 여행 시대’가 무르익었어요. 추억, 힐링, 건강…, 이제는 저마다 걷기의 철학을 찾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서사가 쌓여 있는 인천의 골목길이 인천의 귀한 자산입니다.”



개항도시  
The Coffee Town

1960~1970년대 극장, 음식점, 양복점, 병원 등이 몰려 있고 늘 사람으로 북적이던 인천의 중심, 개항로. 그 길에선 만난 최석호 교수.



최석호 교수의 저서 <골목길 역사산책>과 청자 잔. ‘개항도시’는 책마을, 커피마을, 청자마을로 꾸며져 있다.



산곡동 연작-화실 앞(이진우, 50x25cm, watercolr on paper, 2021)  
골목엔 늘 온기와 다정이 넘쳤다.



이진우 작가는 2017년 여름 골목 귀퉁이에 ‘거미화실’을 차렸다. 재개발이 추진되며 셔터를 내린 화실 앞에서, 화가는 얼마간 말이 없다.

거리의 미술

골목을 사랑한 거리의 미술가

거리의 미술가, 이진우(59) 작가를 만난 건 철거가 임박한 동네 한복판이었다. 주민들이 떠나 텅 빈 하늘엔 ‘산곡재개발정비사업구역, 자진 이주 기간 2023년 2월 20일까지’란 현수막만 나부꼈다. 그도 지난해 말 화실을 정리했다.

“제가 지금 유령 같아요. 회색 도시를 정처 없이 배회하는 ‘한낮의 유령.’” 작가는 셔터를 내린 화실을 얼마간 바라보다 좁고 긴 골목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두부를 자른 것처럼 골목이 반듯해요. 1940년대, 인천육군조병창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영단주택입니다. 광복 후에도 부평 일대 노동자들의 집이었어요.”

2017년 여름, 골목 귀퉁이에 ‘거미화실’을 차렸다. “‘거리의 미술’이고, 클 거트, 아름다울 미<sup>미</sup> 해서 큰 그림이란 뜻도 있어요. 제가 주로 마을 벽화를 그리니까.” 산곡동의 낡고 오래된 담벼락을 캔버스 삼아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골목길 모퉁이의 화단, 고추 말리는 할머니, 시한 구절…, 그의 시선은 응당 골목으로 향했다. 그곳엔 온기가 가득했다. 그가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벽화를 손바닥으로 꺾꾹 누른다. “떨췄는데 할아버지가 나가시니까 갈라지고 들뜨네요. 사람이 떠나면 그래요. 안에 온기가 빠져버리면 티가 나요. 집주인 할아버지가 참 좋아하셨는데.” 사시사철 봄이던 벽화 꽃길에 스산함이 감돈다.

지난해 말, 그는 ‘산곡동 연작’이라는 전시회를 열었다. 지난 5년, 눈으로 담은 골목의 풍경을 틈틈이 화폭으로 옮겼다. “조바심이 있었어요, 없어지는 것에 대한…. 그리워도 다신 볼 수 없잖아요.” 골목 한가운데에서 세상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를 그리는 이 작가, 그의 그림은 머지않아 사라질 골목에 대한 기록이고 곧 역사가 될 것이다.

거리의 미술



산곡동 연작-골목 이야기  
(이진우, 53x38cm, watercolr on paper, 2021)  
그의 시선은 응당 골목으로 향했다.



정  
성  
길처마 끝에 반짝이는 **오방색**의 세계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 안영우 포토 저널리스트

전통 건축물에 피어난 꽃. 단청<sup>丹靑</sup>은 붉고 푸른 빛깔을 가리킨다. 붉은색의 원료인 ‘단사’와 푸른색의 원료인 ‘청화’의 줄인 말이다. 이 색깔을 띤 돌들을 갈아 기둥이나 처마 등 건축물 내외부에 칠하는 것이 단청의 기능이다.

“황·청·백·적·흑 오방색으로 불화, 고분, 석조건축, 공예품 같은 여러 조형물에 문양과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는 것까지를 포함하지요.”

정성길(66) 단청장. 영종도가 고향인 그는 열일곱 살에 단청을 시작해 반세기 동안 전국을 누비며 그림을 그려왔다. 인천의 사찰들 가운데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

“제가 어렸을 때 영종도에 국민학교가 3개 있었는데 소풍을 늘 용궁사로 갔어요. 그때부터 대웅보전에 그려진 단청을 자연스럽게 접했지요. 조금 더 자란 어느 날, 절에 다니시던 어머니를 따라 영종도 용궁사를 갔는데 그날 따라 법당의 빛깔이 그렇게 고울 수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무엇에 홀린 듯 단청을 하겠다는 아들에게 그의 부모는 처음엔 걱정의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했던가. “결국 ‘부처님의 뜻인가 보다’ 하시며 허락을 해주셨지요.”

1974년, 단청을 배우기 위해 그는 경남 양산 통도사로 들어간다. 화승들이 모여 살던 사찰이었다. 정 단청장은 이곳에서 혜각(1905~1998,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스님과 김준웅(1941~2010) 단청장을 스승으로 모신다. 손끝이 갈라지고 손가락 마디 부기가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붓을 잡았다. 깊은 산중에서의 단청 작업은 힘겹고 고독했다. 한번 작업을 시작하면 오랜 기간 사찰에 머물러야 했다. 간첩으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기도 했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적도 있었다.

“작업을 시작하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씩 절에 머물러야 합니다. 머리 까만 사람이 절에 머무르다 보니 형사들이 찾아와 당신 간첩 아니냐며 조사를 하곤 했지요.” 그렇게 사찰, 궁궐, 관아 등 수백 곳의 단청 작업에 참여하며 그는 장인으로 성장한다. 전국을 누비던 정 단청장

이 독립해 고향에 정착한 때는 1986년. 인천 수도사 ‘삼천불전’ 작업을 하면서다. 단청은 보통 여러 사람이 각자 자신이 칠할 색을 맡아 일을 진행한다. 독립한 이후 50여 명의 사람을 데리고 일할 때가 있을 만큼 하루가 다르게 그를 찾는 사람은 늘어만 갔다. 그렇게 2004년엔 인천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2009년엔 신포동에 그의 호를 딴 ‘혜명단청박물관’을 개관한다.

“고건축물 보수 공사 때 나오는 조각품을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 모으기 시작한 게 2,000점이 넘더군요. 그걸로 박물관을 차렸어요.” 혜명단청박물관은 유물 전시관이면서 전통문화 교육·체험 장소로 많은 사람이 발걸음을 하는 개항장의 명소가 됐다.

“단청은 건축물을 잘 보존하고 잡귀를 쫓는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미를 살리는 것은 물론이지요.” 정 단청장은 “우리 조상들은 색깔에 민족의 정서와 삼라만상의 질서가 담겨 있다고 믿었다”며 “색동저고리에도, 국수 위에 올린 고명에도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 그런 그에게 근심거리가 하나 있다. 단청의 맥을 이을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저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직업으로 삼기엔 부담이 크다 보니 배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가 잡은 붓끝에서 생명을 얻은 단청 꽃문양이 은은한 봄의 향기를 퍼뜨렸다.



정성길 단청장이 혜명단청박물관 앞에서 활짝 웃고 있다.





2~3월에 꽃잎을 여는 복수초.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다.

## 인천엔 꽃이 피네 봄 여름 가을 없이 꽃이 피네

태초부터 있었던, 인류의 대선배. 식물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는 식물에게서 받아들이는 에너지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간다. 생명체의 호흡과 영양이 식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식물은 중요한 먹거리이자 병을 치유하는 약재가 되기도 한다. 후각을 현란하게 매혹하는 향기와 그윽한 눈맛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식물이 없는 지구 생명체의 생존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 홍승훈 포토그래퍼



### 인천대공원에 먼저 찾아온 봄의 전령, 복수초와 풍년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며 폭신평신했던 황갈색 대지. 그 위로 움터 올라오는 연둣빛 풀잎새들. 지난 2월 중순, 인천대공원에 봄이 먼저 찾아왔다. 행복과 장수를 상징하는 ‘복수초(福壽草)’는 봄에 가장 빨리 피어나는 꽃답게 섣달의 꽃잎을 열고 있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겨울과 봄 사이에 피는 꽃나무인 ‘풍년화’도 서둘러 꽃잎을 피워낸 모습이다. 가지에 매달린 노란 꽃잎새의 무리가 이쁨만 큼이나 풍성해 보인다.

복수초는 우리나라 숲속에서 발견되는 다년생초본이다. 햇볕이 잘 드는 양지와 약간의 습기가 있는 곳에서 자란다. 키는 10cm~15cm 정도이고, 노란색을 띤다. 6·7월엔 별사탕 같은 열매도 달리는데 여름이 깊어지면 모습을 감춘다. 풍년화는 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나는 꽃나무다. 2cm 크기 4개의 꽃잎은 주글 주글한 모양을 하고 있다. 10월이면 달걀 모양의 열매를 맺는데 짧은 솜털이 뽁뽁이 나오며 2개로 갈라진다. 박현규(35) 인천대공원사업소 연구사는 “인천 수목원이 섬과 내륙의 식물 1,450종, 23만 8,428본을 수집, 증식, 보존하고 있다”며 “3월이면 많은 꽃이 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중순, 인천대공원에 피어난 풍년화







매화마름(개화 시기 5월, 강화도 선원면)



대청부채(7~8월, 대청도)



정향풀(6월 중순, 대청도)

멸종위기 대청부채, 정향풀,  
강화도매화마름을 비롯해  
인천에 600여 종의 희귀식물 서식

대청부채, 정향풀, 강화도매화마름 등 인천엔 멸종위기종 2급 식물을 비롯해 609종의 야생화가 서식한다. 현재 한반도의 자생식물은 3,600여 종, 희귀식물은 600여 종이다. 지난해 여름 대청도 미아동해변에서 본 대청부채는 잎이 부챗살처럼 퍼진 모양으로 피어나 있었다. 대청도에서 처음 발견돼 대청부채란 이름이 붙었으며, 인근 백령도 암벽에서도 볼 수 있다. 윗부분에서 가지가 갈라지며 50cm~90cm 정도의 키로 자라는 대청부채의 꽃은 분홍빛이 감도는 보라색을 띤다. 7·8월에 피는데 오후 서너 시에 만개했다가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꽃잎을 접는다.



노루귀(3~4월, 대부도 구봉산)



할미꽃(4월, 연평도)



변산바람꽃(3월, 풍도)



너도바람꽃(3~4월, 안양 수리산)

정향풀은 바닷가 풀밭에서 자란다. 40cm~80cm의 키에 뿌리줄기가 옆으로 뻗으며 위쪽에서 가지가 갈라진다. 하늘색 꽃은 5월에 볼 수 있다. 만개했을 때 옆에서 보면 ‘丁’ 자처럼 보여 정향풀이라고 이름 붙였다. 대청도를 비롯한 서해안 바닷가에서 주로 서식한다. 매화마름은 람사르 논습지인 강화도 길상면 초지리 매화마름 군락지에 가면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강화매화마름이라고도 한다. 수생 식물로 논에서 서식하는데, 겨울에 담수를 유지한 친환경 논에서 싹을 틔워 4·5월에 꽃을 피워낸다. 논에서 벼와 함께 시간 차를 두고 피고 지는데 유기질소 순환이 이루어져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강화매화마름 군락지엔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붉은배새매, 황조롱이를 비롯한 48종의 조류가 찾아온다. 무척추동물, 야생식물도 수십에서 수백 종에 이른다.





깽깽이풀(4~5월, 장봉도 국사봉)

산자고(4~5월, 영흥도 국사봉)

맑은 공기·식량·약을 주는 식물과  
더불어 사는 길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식물은 사람의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산소를 생산하고 음식과 열을 제공한다. 대신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이 내뿜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햇빛에서 얻은 에너지, 흙에서 빨아들인 물과 무기물을 결합해 양분을 만든다.

식물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식량원이다. 식물의 열매는 과일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건강을 지켜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약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꽃은 또 어떠한가. 호르몬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식물의 뿌리는 인간의 신경계를, 잎과 줄기는 호흡과 순환계를 관장한다. 우리가 식물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다.

정수경(56) 인천대공원사업소 녹지연구관은 “식물이 잘 자라려면 기후와 토양, 습도가 잘 맞아야 한다”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이 중요한 것은 기후 위기 시 많은 식물이 사라지며 생태계가 교란돼 결국 모든 생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순비기나무(8월, 대청도)

백령풀(7~8월, 대청도)



순비기나무(8월, 대청도)

환경 칼럼

식물 개화 시기가 변하면...

글 노형래 환경 칼럼니스트

인천을 비롯한 한반도 봄꽃 개화 시기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만난 봄꽃을 보면 반가울 텐데, 일찍 핀 꽃들을 보며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이유가 있다. 생태계가 비정상적으로 변한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지난해 3월 보도 자료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3월에 필 봄꽃들이 21세기 후반이면 2월에 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 식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벌꿀과 나비 같은 곤충이 사라지고 새들의 산란, 이동 시기도 달라져 생태계는 재앙 수준으로 무너질 수 있다. 산림자원과 농업 생산성에도 변화가 생겨 인간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은 자명하다.

인천 섬을 탐사하다 보면 아열대식물인 늘푸른 나무를 자주 만난다. 한반도 이남에 있어야 할 나무가 인천에 서식하고 있는 것이다. 동백나무(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 후박나무(덕적면 각홀도), 붉가시나무(덕적면 남섬), 보리밥나무,

송악, 계요등, 큰천남성까지 인천 섬에서 환경부 국가기후변화지표종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인천에서 남방계식물이 발견되는 것은 기후변화 요인보다 서해 난류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긴 하다. 북방계식물과 남방계식물 등 다양한 식물군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인천이 우리나라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연구 최적지로 떠오르는 어부지리를 얻은 측면도 있기는 하다. 이미 대청도 동백나무 군락지는 천연기념물 제66호로 지정돼 보호를 받으며 남방계식물의 북한계지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도 서해 난류 현상으로 인한 남방계식물의 생육지 확산과 기후변화로 인한 식물 생태계 교란이 인천 식생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우려스럽다. 벚꽃이 지난해보다 5일이나 빨리 핀다는 오는 4월 3일 그날, 활짝 핀 벚꽃을 보며 웃을 수 있을까.



## 창의력이 곧 도시 경쟁력 창조도시의 대표주자, 요코하마(横浜)

‘문화와 예술의 창조성을 토대로 산업과 고용, 교육, 의료,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도시 공간에 조화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새로운 도시개발의 담론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이러한 도시 이론을 ‘창조도시론’이라고 한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이며, 나아가 문화가 ‘지역의 경쟁력’이라고도 한다. 이 같은 창조도시로 성장한 세계적 도시를 찾아 그 사례를 살펴본다.

글 남승균 인천대학교 지역동행플랫폼 전문연구원

### 문화가 지역의 경쟁력을 이끈다

<오래된 미래>의 저자이자 세계적 생태환경 연구자인 헬레나 노르베리호지는 “세계적으로 획일화된 경제와 소비문화는 빈곤을 창출한다. 이러한 행복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지역화, 지역 문화를 살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했다. 대량생산은 대중문화를 탄생시켰으며, 대중문화는 소비의 세계화라는 결과를 불러왔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환경을 파괴했으며, 이러한 환경 파괴로 문화의 다양성도 사라지게 되었다. 사사키 마사유키는 1990년대 중반 저서 <창조도시와 경제학>에서 창조도시를 “문화와 산업의 창조성을 풍부하게 하며 동시에 탈대량생산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 시스템을 갖춘 곳이다”라고 정의하며,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와 지역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 공간이 풍부한 곳이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이 같은 창조도시의 맥락에서 요코하마(横浜)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요코하마 창조도시의 성공 사례는 아카렌 창고처럼 오래된 지역의 자원을 잘 활용했으며,

개발의 이익보다는 시민 입장에서 도시의 변화를 추구할 뿐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공공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코하마는 일본의 수도 도쿄(東京)의 서남부에 위치해 가나가와현청 소재지이자 가나가와현 최대 도시로 꼽힌다. 면적은 437.56km<sup>2</sup>에 인구 376만 6,999명(2023년 2월)에 세대수는 1,781.426세대로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쿄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 도쿄 대도시권에 속하며, 서울과 인천의 관계처럼 도쿄의 외항 역할을 해 서울과 인천을 묶어 경인이라 하는 것처럼 도쿄와 요코하마를 묶어 게이힌(京浜)이라 하기도 한다. 인천과 요코하마는 지정학적이거나 역사적 맥락에서 유사한 점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다. 인천에 짜장면 박물관이 있다면 요코하마에는 라멘 박물관이 있고, 인천에 송도경제자유구역의 동북아트레이드타워가 있다면 요코하마에는 베이브리지타워가 있다. 그뿐 아니라 경인 철도와 신칸센 등 요코하마를 소개할 때 ‘한국의 인천’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곤 한다.







야간 조명을 밝힌 요코하마 스카이라인

## 두 번의 재난을 겪은 요코하마

인구 600명의 시골 마을이던 요코하마가 세계 역사에 등장하게 된 계기는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한 미일수호통상조약이다. 이로 인해 일본은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으며, 일본 최초로 개항한 곳이 바로 요코하마다.

개항 이후 요코하마는 시가지와 외국인 거류지 정비, 차와 명주실 수출로 근대 무역도시로서의 체계를 정비해 가면서 도시화의 기초를 마련해 갔다. 그러나 1866년에 발생한 대화재는 요코하마 대부분을 불태웠고, 이를 계기로 요코하마 시가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게 된다. 당시 일본 최초의 서양식 공원이라고 불리는 요코하마공원의 건설을 비롯해 하수도와 대로를 정비하고, 대로 주변에도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다. 이것은 일본 근대도시 계획의 설계일 뿐 아니라 요코하마시 도시계획의 토대가 되었다. 요코하마는 1880년대부터 무역 교역량이 급속히 증가하자 기존 항만시설로는 부족해 1889년과 1899년 두 번에 걸쳐 축항 공사를 실시하고 동양 최대 규모의 항만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때 공업용지 공급을 위해 처음으로 매립사업이 시작되어 게이힌 공업지대 조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요코하마 산업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런데 대규모 화재를 겪은 요코하마는 설상가상으로 또 한 번 재난을 맞는다. 1923년 9월 1일 도쿄와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한 관동지방에 진도 7.9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항만시설이 처참하게 붕괴되었으며, 도시 전체가 큰 피해를 입어 도시 기능마저 마비되었다. 그리고 관동대지진의 피해 복구가 지연되면서 고베항의 성장과 도쿄항만 개발 등으로 인해 국제무역항으로서 요코하마는 위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1929년 무렵 도시

복구가 마무리되고 예전 모습을 되찾았다. 1931년 이후에는 게이힌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기존 무역과 함께 공업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고, 요코하마는 국제무역항과 공업도시로서의 기초를 갖추게 된다.

요코하마는 1866년 대규모 화재와 1923년 관동대지진이라는 엄청난 재난을 딛고 무역항과 공업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다시 한번 위기를 맞는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일어난 1945년 5월 29일 연합군의 요코하마 대공습으로 도시의 42%가 불타 버려 허허벌판이 된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항만시설의 90%, 도시의 27%가 연합군에 몰수되어 요코하마의 재건은 다른 도시에 비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요코하마의 붉은 벽돌 공원



## 아픔을 딛고 창조도시로 거듭나다

일본 정부는 ‘전후부흥원’을 설치,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1950년 ‘항만법’ 개정으로 요코하마는 요코하마항 관리권을 시가 갖게 되면서 공업도시 요코하마에 항구를 활용한 물류 공업지대로서 산업기반을 정비하게 된다.

요코하마는 전후 미군 주둔 등 도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65년에 ‘요코하마 6대 사업’이 제안되었고, 그중 하나로 도심부 강화를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 요코하마 조선소와 일부 부두들이 있는 곳을 재정비해 요코하마의 도심부를 일체화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 후 1983년 미쓰비시 중공업과 요코하마 조선소 이전이 완료되고 나서 ‘미나토미라이21사업’이 시작된다.

요코하마는 구시가지 간나이 지구와 요코하마 주변 지구로 나뉘는데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요코하마시의 숙원사업이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 바로 ‘미나토미라이21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두 지역이 연결되었고, 과거 건축물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모했다. 그 결과, 요코하마 바샤미차 역 1번 출구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 ‘YCC 요코하마 창조도시센터’로 연결된다.

이러한 인프라를 토대로 2000년대 들어서 요코하마를 문화도시로 만든 프로젝트가 바로 ‘크리에이티브 시티 요코하마’다. 2000년에 도시계획이 책정되었는데 활력 있는 도시계획, 안전·안심할 수 있는 도시계획, 개성이 넘치는 도시계획, 삶을 지탱하는 도시계획이 원칙이었

다. 그리고 2002년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정과 시민,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요코하마는 여러 차례 도시의 재난을 새로운 발전의 발판으로 만들어 온 역사가 있었다. 따라서 2009년 요코하마는 개항 150주년을 맞아 ‘크리에이티브 시티 요코하마’ 사업을 활발히 전개했다. 여러 기업과 단체, 지자체가 상호 연계해 머리를 맞댔다. 그리고 2010년부터 공간(space), 사람(people), 교류(relation), 거리(community)라는 네 가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역사와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일 기회를 만들고, 요코하마의 다면적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교류하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리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창조도시로의 발전 과정에서 요코하마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힘든 시기마다 도시계획을 하되, 미래를 보고 설계하는 관점이다.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 같은 ‘소프트’한 시책과 지역개발 같은 ‘하드’한 시책을 함께 진행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시민이 자랑할 만한 도시,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도시로의 발전을 같이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자발적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 활동과 협력에 관한 기본 방침을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창조도시 인천을 꿈꾸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요코하마의 사례를 통해 인천이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창조도시 인천의 밝은 내일을 기대한다.

요코하마항







전체 면적 75,670m²(약 2만 2,890평)의 팔미도는 운치있는 둘레길이 조성돼 있다.



바다에서 바라본 팔미도(사진 위)

팔미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등대를 살펴보고 있다.

## 노을에 물든 등대를 지나 꽃나무 우거진 산책로를 걷다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팔미도 유람선에 오르기에 앞서 ‘밴댕이회무침거리’를 찾았다. 연안부두에 가면 회덮밥을 먹는 것은 기본. 매콤달콤 회무침에 잘게 썬 상추, 참기름을 넣어 쓱쓱 비빈 회덮밥은 연안부두 아닌 곳에서 맛보기 어려운 ‘인천의 참맛’이다.

간장게장, 된장국을 곁들여 회덮밥 한 그릇을 푹딱 해치운 뒤 해양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팔미도를 한 바퀴 돌고 나오는 배에 오르는 때는 일요일 오후 2시

30분. 코로나19 이후 팔미도 유람선은 주말에만 운행하는 중이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바다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가 떠나기 직전, 가수 박건아(60) 씨가 승객들에게 구명조끼 착용법을 설명했다. 박 씨는 “팔미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욕장이 있던 섬으로 얼마 전 권상우가 주연한 드라마를 촬영했다”며 “조만간 티브이

에서 팔미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줬다. 그는 연안부두를 출발해 팔미도를 돌아보고 노을을 받으며 하선하는 3시간 반 동안 안내는 물론 노래, 오락 진행 등 ‘1인 다역’으로 승객들을 즐겁게 해줬다.

부두를 출발, 인천대교를 지나 50분쯤 갔을까. 잔잔한 바다 위 오롯이 떠 있는 팔미도가 가깝게 다가왔다. 부두에 배를 대자 군인 한 명이 나와 밧줄을 묶었다.

팔미도 유람 첫 코스인 ‘천년의 빛’ 광장에서 ‘천년의 빛 번영의 바다’란 이름의 조형물을 만났다.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인 팔미도등대가 100주년을 맞은 2003년 만든 작품이다. 등대 조형물을 100개의 탑이 둘러싼 모습이었다.

조금 더 오르자 동화 속 오두막 같은 건축물이 나타났다. 1903년 6월 1일 팔미도등대 점등 이후 지어 1962년 5월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을 새로 지어 이전할 때까지 ‘옛 등대 사무실’로 이용하던 공간이다. 이후 군인 교회로 사용하다 지금은 전시관으로 사람들을 맞고 있다. 문을 열자 ‘마네킹 등대지기’ 둘이 일하는 모습이 정겹게 다가왔다.

잠시 뒤 작고 하얀 등대가 보인다. 그 뒤로 빨간 지붕을 한 키 큰 등대도 눈에 들어온다. 키 작은 등대는 120년 역사의 팔미도등대(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 40호)이고, 키 큰 등대는 2003년 신축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건물로 입구



전시실로 꾸며 놓은 옛 등대 사무실

와 상층 부분을 대리석으로 장식하고, 나무로 만든 문과 창문을 달아놓은 팔미도등대는 외벽의 실금마져 무늬처럼 보인다. 등대를 만난 관광객들이 너도나도 그 앞에서 셀카를 찍는다. 신축 등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전시실이 나온다. 전시실엔 인천상륙작전 당시 팔미도등대의 역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군인들이 등대에 상륙하는 모습을 재현해 놓고 있었다.

팔미도 유람의 마지막 코스는 둘레길 걷기. 배에서 바라본 팔미도는 두 손으로 뜰 수도 있을 것만큼 아담했다. 그런데 그 작은 섬에 이렇듯 길고 운치 있는 산책로가 숨어 있을 줄이야. 팔미도 둘레길을 걸으며 한국전쟁 때 사용한 해안포를 목격했고 소사나무, 뽕나무가 우거진 길을 지나쳤다. 팔미도를 한 바퀴 돌아 선착장에 도착하자 ‘팔미도등대역사관’이 기다리고 있다. 등대역사관 안에선 6·25전쟁 영상을 상영하고, 사진도 전시하는 중이었다.

역사관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기암괴석과 모래자갈이 깔린 해변을 걸으며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팔미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마지막 코스는 낙조를 보며 연안부두로 돌아오는 것이었으나 아쉽게도 미세먼지가 해를 가리고 있었다.

안내자는 “팔미귀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팔미도에서 보는 낙조는 아름답다”며 “낙조를 볼 수 있는 날 다시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빛을 발광하는 등명기



## “얼~쑈” 인천시민과 함께 30년 ‘새얼 국악의 밤’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 제공 새얼문화재단



‘전통 민속 연희의 계승 발전과 현대적인 재창조를 위하여’란 가치를 실현하며 새얼문화재단(이하 새얼, 이사장 지용택)이 1993년 6월부터 매년 개최해 온 ‘새얼 국악의 밤’이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새얼은 지난 30년을 기념하고 다가올 30년을 준비하는 ‘새얼 국악의 밤 30주년 공연’을 오는 3월 16일 오후 7시 30분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새얼은 국악을 매개로 후손들에게 전통문화를 물려주고 21세기라는 새 시대의 소명을 확인하자는 취지로 매년 ‘새얼 국악의 밤’을 개최해 오고 있다. 전통음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인천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마당인 ‘새얼 국악의 밤’엔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인과 대중음악가, 예술가들이 함께해 왔다.

판소리 명창 박동진·안숙선·조통달이 전통 소리를 전해 줬고 민요 명창 김영임·김장순·이춘희가 민요의 선율을 들려줬다. 마당놀이극의 대모 김성녀, 국악인 오정해, 우리나라 대표 소리꾼 백현호·남상일·유태평양·강효주 등도 국악의 진수를 보여줬다.

창작 가야금 음악의 창시자 황병기, 최고의 대금 연주자 이생강,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창시자 원장현을 비롯한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 연주자와 그들의 뒤를 잇는 해금 연주자 안수련도 ‘새얼 국악의 밤’을 통해 인천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명무 계현순, 최고의 춤꾼

이자 창작 춤의 대가 김매자와 창무회는 화려함과 단아함을 겸비한 전통춤의 매력을 뽐냈다. 한국 사물놀이를 세계에 널리 알린 김덕수와 일본을 대표하는 타악 연주자 하야시 에데스가 양국을 대표하는 퍼포먼스를 펼쳤고,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 이수자 남창동도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새얼 국악의 밤’은 우리 전통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다른 장르와 결합을 시도하기도 했다. 비보이 런피플, 타악 그룹 야단법석, 엑스(Aux)의 보컬 서진실, 그리고 소리꾼과 춤꾼 박애리&팝핀현준이 그들이다. 세계 음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만들기도 했다. 대한민국 대표 테너 임용균, 세계적인 뮤지컬 스타 마이클 리 등 여러 가곡·아리아·뮤지컬 가수들이 무대를 빛냈다. 또 정태춘, 김수희, 안치환, 장사익, 안예은, 한영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음악인이 참여했다. 인천시립무용단, 인천 출신 국악 신동 황시원, 인천을 대표하는 국악인 김경아, 타악 그룹 세움, 그리고 인천 국악의 미래를 밝히는 신송초등학교 국악오케스트라 등 인천의 예술인들이 출연한 것은 물론이다.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은 “인천에는 국악의 토양이 너무 없다는 생각에 시작한 ‘새얼 국악의 밤’이 어느덧 30년이 흘러 인천의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시민의 삶 속에 흐르는 샘이 깊은 물이 되었다”고 말했다.

문의 032-885-3611~4



### IMAGE NEWS

## 개인 방역 5대 수칙 잘 지켜 안전하고 건강하게!

01

### 코로나19 생활 방역 세부 수칙



- # 감염 가능성 저하, 감염 시 중증화 예방
- # 정부가 권고하는 기준 준수
- # 미접종자 1·2차 기초 접종 및 동절기 추가 접종

02

### 사람 많고, 밀폐된 곳에선 마스크 쓰기



- #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수단  
실내에서는 의무적 착용
- # 의심 증상 발현, 고위험군과 접촉, 환기  
어려운 환경 역시 착용

03

###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 손을 잘 씻어 바이러스 차단
-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

04

### 환기와 소독은 철저히, 증상 발생 시 타인 접촉 최소화



- # 1일 3회 회당 10분 이상 환기할 것,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1일 1회 이상 소독
- #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진료받고 집에서 머물기



## ‘제물포 르네상스’로 원도심 균형 발전 기대



중구와 동구를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합된 사람 중심의 원도심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가 닛을 올렸다. 우리 시는 지난 2월 1일 원도심, 문화·관광, 산업경제, 내항 개발 등 총 4개 분야의 전략 과제 및 실행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했다. 마중물 사업인 내항의 ‘상상플랫폼’ 공사가 재개되고, KTX 인천역 출발과 제2공항철도, 인천지하철 3호선, 제4경인고속도로 건설 등 원도심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제물포 르네상스 기획단 032-458-7303

##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543억 달러 달성

우리 시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수출 실적 543억 달러를 기록했다. 종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은 2021년 460억 달러로, 18%나 늘어난 규모다. 성과의 주역은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로, 전체 수출 실적의 약 30.9%에 달한다. 수출 비중이 큰 후공정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을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지난해 6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중소기업 3,286곳에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인프라를 확충했다.

시 산업진흥과 032-440-4282

## 가스, 대중교통 등 7대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우리 시는 경제난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반기 도시가스, 택시·버스·지하철의 대중교통,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7대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내버스는 189억 원, 도시철도는 50억 원 등 시민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한 하수도 요금도 감면하기로 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에 힘을 보탤다.

시 경제정책과 032-440-4202

## 한의학 난임 치료 남성까지 확대 지원

우리 시는 올해부터 한의학 난임 치료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한다. 2020년부터 시행한 한방 의료기관 78개소 중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한약 치료 3개월, 사후관리 3개월 등 총 6개월간 본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난임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부부로 양방 난임 시술 지원은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 및 신청할 수 있다.

시 영유아정책과 032-440-3223

## 암 환자 가발 구입비 90% 지원

올해부터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고 있는 암 환자에게 가발 구입비의 90%,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인천시민으로,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탈모가 심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오는 12월 8일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건강증진과 032-440-1593

## 아동 안전망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우리 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가정 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 대상을 0세에서 만 3세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대·피해 아동 심터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확충하는 한편, 바람직한 양육 방법에 대한 부모 교육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시 아동정책과 032-440-3493

## 2023년 청년정책 71개 사업 1,051억 원 지원

우리 시는 ‘2023년 인천시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71개 세부 사업에 지난해 대비 160억 원 증액한 1,05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자립과 일상을 아우르면서도 진취적으로 도전할 기회를 만드는 정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시 청년정책담당관 032-440-4172

### 2022년 하반기

## 인천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기간**  
2023. 2. 15.(수) 09:00 ~ 3. 14.(화) 18:00

**지원대상**  
①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원)생(포함) 재·휴학생 및 마취임 졸업생\* 중  
\* 대학원생(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졸업 후 2년 이내)  
② 한국장학재단 신청 소득 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 다자녀가정(2명 이상) 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지원내용**  
2019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이자 지원

**신청방법**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 온라인 신청

**지원방법**  
한국장학재단 대출원리금에서 상환(개인계좌 입금 없음)

**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 ☎ 032-120  
• 인천광역시 교육협력담당관 ☎ 032-440-2193  
\*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 올해 의료 관광객 1만 3,000명 유치 팔 걷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을 맞아 우리 시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8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유치 역량 강화, 의료 관광객 맞춤형 수용 태세 강화, 인천 의료 관광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 3개 중점 과제와 8개의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국제기구, 인천시 자매도시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의료·웰니스 융복합 코디네이터를 육성할 방침이다. 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37

## 1대1 매칭, 소상공인 성공 컨설팅 지원

우리 시는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와 1대1 매칭을 통한 성공 컨설팅을 지원한다. 경영 진단 및 지도, 마케팅 및 판로 개척, SNS 마케팅, 기술 전수, 행정 지도, 창업 지도, 기술 지도, 스마트공방 사업화 지원, 금융 등 총 9개 분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홈페이지([www.insupport.or.kr](http://www.insupport.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43

## 연 0.8% 초저금리 융자, 소상공인 대상

인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연 0.8%의 초저금리 정책 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 점포 시설 개선 또는 운영 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 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이고, 보증 수수료 또한 연 0.8%다. 관련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http://www.icsinb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8

## 독일 싸토리우스, 송도에 생산·연구시설 착공

바이오의약 관련 글로벌 선도 기업인 독일의 싸토리우스가 송도국제도시에 대규모 생산·연구시설을 착공했다. 오는 2025년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바이오의약에 사용되는 주요 제품을 제조하는 한편, 전 세계 수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의약 공정 분야 연구개발 및 교육 사업도 적극 추진해 국내 기술 이전과 연관 산업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시 신성장산업유치과 032-453-7654

## 역대 최대 규모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리 시가 수소전기차 2,127대, 전년 대비 373%가 증가한 총 1,071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구매 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우리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사업자, 법인, 단체에 해당하며 보조금은 승용차는 대당 3,250만 원, 버스는 3억~3억 5,000만 원, 화물차는 4억 5,000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수소충전소 8개소가 추가 준공되어 총 14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시 에너지정책과 032-440-4304

##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 확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지도 및 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에는 총 8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는 중구 등 7개 구에 입주 예정인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중 11개 단지에 입주 전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포름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등 7개 항목을 확인한다. 시 생활환경과 032-440-5638

##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우리 시는 고령층을 비롯해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누구나 쉽게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역량부터 심화 교육까지 수준별로 진행되며,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물론 도서관이나 복지관 등에서의 집합 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도서·산간 지역에는 에듀 버스와 이동 부스 등을 이용해 찾아가는 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 정보화담당관 032-440-2322





## COUNCIL NEWS

### 제6기 의정모니터 소양교육 실시



인천광역시의회가 의정모니터를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전체 운영 계획을 비롯해 역할, 우수 사례 공유, 양성평등 교육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제5기 우수 의정모니터에 대한 수상도 함께 진행했다. 제6기 의정모니터는 지난 7월 위촉되어 2년 동안 활동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의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총 29건의 의견을 제안했다.

### 산업경제위원회, 시민 생활 시설 현장 점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연수구 소재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와 송도사업소, 인천중합에너지 등을 방문해 현안을 점검했다. 정해진 위원장은 해당 현장 임직원들에게 “여러분이 운영 중인 시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대·인하대와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의회는 지역 내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자 인천대·인하대와 ‘대학생 인턴십’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인턴십은 방학 기간 중 6주 동안 진행되며, 대학생들에게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정 지원 경험을 통해 직무 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장 분야에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존할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 교육위원회, 사립유치원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 회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현안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학기 준비 상황 점검과 함께 물가 상승에 따른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같이 고민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신충식 위원장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인천 유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문화복지위원회, 제2의료원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2의료원 타당성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김석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민의 보편적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제2의료원 건립 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의 주제 강연, 인천시 보건복지국 경과 보고, 참석자 질의응답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 건설교통위원회, 지하철 실태 점검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하철의 정비 및 안전 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굴현기지차량사업소와 박촌역 현장을 방문했다. 임관만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은 물론 쾌적한 지하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인천교통공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철저한 안전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시의회 차원의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 〈인천앓의회〉 구독 안내



인천광역시의회의 더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앓의회〉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한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앓의회〉에는 의회, 관광, 인천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의회사무처) 032-440-6136

### 인천광역시의회 SNS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①전화 ④홈페이지 ⑤이메일 ⑥팩스

##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1

##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

내용: -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 전 상담 업무 우선 실시  
- 법률 상담 및 지원, 피해 확인서 발급, 긴급 금융 지원 및 주거 지원, 피해 확산 방지 등  
장소: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인천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 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문의: ① 1533-8119

2

## 주민자치 기반 '인천온마을' 서비스 개시

내용: -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 운영 전 과정을 연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 지역에 필요한 의제 제안 및 진행 상황 확인, 온라인 투표 참여 등 가능  
참여 방법: 주요 포털에서 '인천온마을' 검색하면 상단 노출되어 쉽게 찾을 수 있음  
문의: ① 032-440-8927 ④ onmaeul.incheon.go.kr

3

##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대상: 생후 6개월~4세 영유아,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  
백신 종류: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접종 간격 및 횟수: 8주(56일) 간격으로 3회 실시  
접종 방법: 온라인 예약 혹은 당일 및 현장 가능  
문의: ④ ncv.kdc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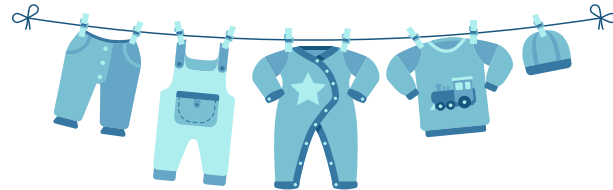
4

## 인향초·중·고등학교 봄학기 학생 모집

대상: 남녀 연령 제한 없음  
수업: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모집: 상시 진행하며, 오후 2시 이후 접수(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문의: ① 032-772-4061 ④ www.inhyang.net

5

## 찾아가는 공감 세탁 서비스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쪽방 거주자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내용: - 1인 가구 10만 원, 2인 가구 13만 원, 3인 이상 가구 1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이불, 담요 등 11개 품목에 대한 세탁물 수거부터 세탁, 배송까지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문의: ① 032-440-1543

6

## 서부여성회관 사회교육 수강생 모집

신청 기간: 3월 20~31일  
교육 기간: 4월 3일~6월 17일(11주 과정)  
교육 과목: 8개 분야, 75개 강좌  
대상: 만 18세 이상 인천시 거주자(전체 20% 남성 수강 가능, 단 일부 강좌 제외)  
수강료: 3만 원, 4만 5,000원, 6만 원(교재비·재료비 별도)  
신청 방법: 선착순 접수  
문의: ① 032-458-7360 ④ www.incheon.go.kr/wiw

7

## 2023년 인천하늘수 시민 평가단 및 서포터즈 모집

모집 인원: 150명  
모집 기간: 3월 12일까지  
참가 자격: SNS 활용 및 이해도가 높은 19세 이상 인천시민  
문의: ① 02-3156-7742

8

## 인천송림동우체국 재건축 업무 중지

기간: 4월 1일~2024년 상반기(예정)  
내용: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우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건축 추진  
서비스 안내: 우편(1588-1300), 예금(1588-1900), 보험(1599-0100)  
인근 우체국 안내  
- 인천중동우체국(인하대병원 옆 정적빌딩 1층, 032-772-0801)  
- 인천화평동우체국(동인천역 300m, 032-763-2003)  
- 인천만석동우체국(만석고가 다리 밑, 032-762-0803)  
- 인천유등동우체국(우편 업무에 한함, 종합공구상가 내, 032-589-0298)  
문의: ① 032-850-8181

9

## 희망 도서 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내용: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읽고 싶은 책을 가까운 동네 서점에서 대출 및 반납 가능  
이용 방법  
- 미추홀도서관홈페이지(www.michuhollib.go.kr) '비대면 도서대출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매월 1인 3권 이내, 대출일 포함 15일간 이용  
문의: ① 032-440-6622



10

## 마음 건강을 위한 '마음으로' 서비스

내용: - 온라인과 모바일로 24시간 마음 건강 체크 및 관리  
- 25종의 마음 건강 검사를 비롯해 마음 회복 프로그램, 다양한 심리 상담  
문의: ① 032-468-9916 ④ maro.imhc.or.kr

11

##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내용: 2019년 1학기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지난해 하반기(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대상: -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인 경우  
- 대학생은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은 졸업 후 2년 이내  
접수 기간: 3월 14일 오후 6시까지  
접수 방법: 인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온라인 신청  
문의: ① 032-440-2193, 032-120

12

## 송암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단체 수강생 모집

알송달송미술관  
대상: 초등학교 3~6학년 각 학급  
내용: 십이지신, 사군자의 의미와 전시 감상 및 체험 활동  
신청 기간: 3월 10일까지  
문의: ① 032-440-6786

꿈을 그리는 미술관  
대상: 중·고등학교 각 학급  
내용: 큐레이터 직업 탐색 및 체험  
신청 기간: 3월 10일까지  
문의: ① 032-440-6786

13

## 송도컨벤시아서 인천 가구 쇼 개최

인천 가구 쇼  
일시: 3월 1~5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송도컨벤시아 3홀, 4홀  
비용: 5,000원, 사전 등록 시 무료  
문의: ① 02-786-9231 ④ www.gagushow.co.kr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14

## 실증 프로그램 및 크라우드 펀딩 참여사 모집

## 인천항만공사 실증 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

대상: 해양, 물류, 항만 분야 스타트업

내용: 인천항만공사에서 제공하는 실증 인프라와  
최대 3,000만 원의 실증자금 지원

기간: 3월 13일까지

문의: ㉠ 032-453-7484 ㉡ www.startuppark.kr

## 인천국제공항공사 실증 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

대상: 7년 이내 창업 스타트업 중 주요 기술 솔루션 보유사

내용: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할 실내 위치 측위 기술'과  
'자율주행이 가능한 폐기물 이송 로봇' 관련 실증에 참여,  
최대 3,000만 원 이내의 실증자금과 공간 지원

기간: 3월 13일까지

문의: ㉠ 032-453-7484 ㉡ www.startuppark.kr

## 인천도시공사 실증 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

대상: 7년 이내 창업 스타트업 중 스마트시티 분야 제품 및  
서비스 보유사내용: 인천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실증 인프라와 함께 최대  
3,000만 원의 실증자금 지원

기간: 3월 15일까지

문의: ㉠ 032-453-7484 ㉡ www.startuppark.kr

## 크라우드 펀딩 참여 소상공인

대상: 인천 소재 7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내용: 컨설팅, 콘텐츠 제작, 온라인 홍보, 제품 포장 등 최대  
550만 원 지원

기간: 3월 17일까지

참여 방법: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방문, 이메일 및 우편 접수

문의: ㉠ 032-440-4243 ㉡ www.insupport.or.kr

15

## 봄맞이 인천녹색연합 프로그램

## 생태교육활동 초록학교 입학

내용

- 참여자의 집 근처 자연에서 활동을 진행함

- 참여자 스스로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는 교육을  
지향함

문의: ㉠ 032-548-6274 ㉡ www.greenincheon.org

## 초록동무 '숲과 공원에서 놀며 배워요'

대상: 6~12세(4~5학년은 별도 프로그램 병행)

일시: 매월 두 번째 일요일 오전 9시 50분~낮 12시

장소: 계양산(계양구), 인천대공원(남동구),  
원적산공원(부평구), 청량산(연수구·미추홀구·종구·동구),  
박석공원(영종), 연희자연마당(청라, 서구)  
- 8월, 12월 특별 프로그램 진행

문의: ㉠ 032-548-6274 ㉡ www.greenincheon.org

## 게논·갯벌을 모니터링하며 생명을 알아가요

대상: 13~15세

일시: 매월 첫 번째 일요일 약 3시간

장소: 영종 갯벌

내용: 각 모듈별로 갯벌 생물 모니터링 진행(기록, 공유)

- 자원활동확인서(1365) 발급 가능

- 8월, 12월 특별 프로그램 진행

문의: ㉠ 032-548-6274 ㉡ www.greenincheon.org

## 또랑·하천 수질 모니터링과 주변 생물을 알아가요

대상: 15~19세

일시: 세 번째 일요일 오전 9시 30분~낮 12시(3~11월까지)

장소: 굴포천, 계양산 계곡(계양구)

내용: - 각 모듈별로 하천 생물과 수질조사(COD, DO, pH)  
기록과 공유

- 자원활동확인서(1365) 발급 가능

- 환경부 지정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문의: ㉠ 032-548-6274 ㉡ www.greenincheon.org

16

## 전통 성년식·혼례식 참가자 모집

## 전통 성년식 참가자 모집\_당신의 스무 살을 응원합니다

일시: 5월 13일 오후 5시

장소: 다례원(송도 미추홀공원 내)

대상: 올해 성년자(2004년생) 남녀 각 4명(총 8명)

참가비: 무료

모집 기간: 3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모집

모집 방법: 연수문화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032-821-6229

## 전통 혼례식 참가자 모집\_행복하게 천년만년 사세요

일시: 11월 4일 오전 11시

장소: 원인재(인천 문화재 자료)

대상: 결혼식을 하지 못한 부부,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부부,  
지역 소외계층 등 연수구민 3쌍

내용: 전통 혼례식 및 축하 공연, 사진 촬영 및 앨범 증정

참가비: 무료

모집 기간: 3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모집

모집 방법: 연수문화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032-821-6229

17

## 재외동포청 결국 인천입니다



18

## 인천 지역 도서관 행사 풍성

## 미추홀도서관\_중장년 인생수업 특강

기간: 3월 6~27일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

대상: 중장년

문의: ㉠ 032-440-6668

## 미추홀도서관\_되돌아가는 힘! 탄성력

일시: 3월 11일 오전 10시~11시 30분

대상: 초등학교 3~4학년

문의: ㉠ 032-440-6647

## 청라호수도서관\_달튼외국인학교 영어튜터링(6기)

기간: 3월 11일~5월 20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1시 30분

대상: 초등학생

문의: ㉠ 032-563-8044

## 청라호수도서관\_‘까대기’ 이종철 만화 작가와의 만남

일시: 3월 18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청소년

문의: ㉠ 032-563-8044

## 청라국제도서관\_상반기 정규강좌 및 독서회

기간: 3월 7일~5월 19일

문의: ㉠ 032-562-1675

## 영종하늘도서관\_하반기 정규강좌 및 독서회

기간: 3~5월

문의: ㉠ 032-746-9037

## 마전도서관\_그림책으로 떠나는 마음 여행

일시: 3월 14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누구나

문의: ㉠ 032-590-2833

## 마전도서관\_사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림책 읽기

일시: 3월 19일 오전 10~11시

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문의: ㉠ 032-590-2833





# 03 Culture Calendar

## 이달의 전시

문자 + 더하기 그림  
송암미술관  
기획전시실  
3월 5일까지  
☎ 032-440-6782

정채동 초대전  
‘들쫄의 땅’  
도슨아트하우스  
3월 10일까지  
☎ 032-777-5446

이순훈 개인전  
‘꿈 꽃길만 걷자’  
도슨아트하우스  
3월 11~20일까지  
☎ 032-777-5446

도슨청년미술상점  
도슨아트하우스  
3월 21~30일까지  
☎ 032-777-5446

SPACE  
Symphony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3월 26일까지  
☎ 032-729-5116

모든 사물의 역사 Ⅲ  
: 학교  
인천어린이과학관  
기획전시실  
4월 30일까지  
☎ 032-456-2500

놀이터를 부탁해  
인천도시역사관  
3층 전시실  
5월 31일까지  
☎ 032-850-6000

Re-wild garden  
: Forest  
인천아트플랫폼  
야외정원  
12월 31일까지  
☎ 032-850-6031



## 이달의 공연

04 토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3월 4일 오후 5시  
R석 35만 원,  
S석 27만 원,  
A석 19만 원,  
B석 12만 원,  
C석 5만 원  
☎ 032-453-7700

뮤지컬 ‘빨래’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월 4일 오후 7시 30분,  
3월 5일 오후 2-6시  
R석 7만 원, S석 5만 원  
☎ 070-4282-2932

라이브 가족 뮤지컬  
‘라퐁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3월 4-5일 오전 11시,  
오후 2-4시  
전석 2만 원  
☎ 010-2365-1870

05 일

백서연  
바이올린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3월 5일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 원  
☎ 032-289-4275

08 수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월 8-9일  
오후 7시 30분  
VIP석 14만 원,  
R석 10만 원, S석 7만 원  
☎ 032-888-9911

09 목

인천시립교향악단  
제410회 정기연주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3월 10일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 원  
☎ 032-420-2781




## 이달의 공연

11 토

2023 HYNN  
(박혜원) X 홍이삭  
어쩌다 페스티벌  
SPECIAL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월 11일 오후 6시  
R석 12만 1,000원,  
S석 11만 원,  
A석 8만 8,000원  
☎ 1566-6551

매직 오브 아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3월 11-12일 오전 11시, 오후 2-4시  
전석 2만 원  
☎ 010-9611-2073





15 수

2023 커피콘서트 I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리듬의 매력’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3월 15일 오후 2시  
전석 1만 5,000원  
☎ 1588-2341

18 토

작곡가 시리즈  
- 드보르작 I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3월 18일 오후 5시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 032-453-7700

미디어아트 콘서트  
앙리 마티스  
‘색을 노래하다’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월 18일 오후 5시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 1588-2341






21 화

Candlelight  
Guitar Young  
Virtuoso 서승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3월 21일 오후 7시 30분  
R석 4만 원, S석 3만 원  
☎ 010-2116-0516

지혜를 배우는 시간  
- 대담한 대답 I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3월 23일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 원  
☎ 032-453-7700

인천시립합창단  
제180회  
정기연주회 ‘번짐’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3월 23일 오후 7시 30분  
R석 2만 원, S석 1만 원,  
A석 7,000원  
☎ 032-453-7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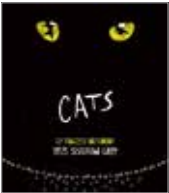


23 목

2023 커피콘서트 II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리듬의 매력’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3월 15일 오후 2시  
전석 1만 5,000원  
☎ 1588-2341

24 금

옥탑재즈 I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3월 24일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 원  
☎ 032-453-7700


캣츠 오리지널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월 24일 오후 7시 30분,  
3월 25-26일 오후 2-7시  
VIP석 17만 원,  
R석 14만 원,  
S석 11만 원, A석 8만 원  
☎ 1566-6551



25 토

싱어롱 콘서트 뮤지컬 ‘무지개 물고기’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3월 25-26일 오전 11시, 오후 2-4시  
전석 3만 원  
☎ 1800-5932

문콰이어 창단 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3월 25일 오후 7시  
무료  
☎ 010-9182-6875



26 일





낭만주의 거장  
‘차이코프스키 & 라흐마니노프’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3월 26일 오후 5시  
VIP석 9만 9,000원,  
R석 7만 7,000원,  
S석 5만 5,000원,  
A석 3만 3,000원  
☎ 02-6292-9368

허윤지  
더블베이스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3월 26일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 원  
☎ 032-289-4275

29 수


마티네 콘서트  
‘김정원의 낭만가도’  
시간 여행 I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3월 29일 오전 11시  
전석 2만 5,000원  
☎ 032-453-7700

마티네 콘서트  
‘마실’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3월 29일 오전 11시  
전석 5,000원  
☎ 032-439-5001




한국 이민사 120주년 기념 음반  
1916 하와이 호놀룰루  
‘애국창가’: 인천 콘서트 챔버

음반 듣기



음반 제작기





# 행복 인천, 시민의 색으로 물들다

## 이달의 드로잉 청라성당

인천을 그리면 어떤 작품으로 완성될까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인천 작가가 스케치하고, 인천시민이 고운 빛과 색을 입힙니다.



## 박선화 작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금속조형디자인과를 졸업하고, 금속 오브제를 이용한 회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경인미술 초대작가이자 인천서구미술협회 이사로 크고 작은 단체전에 함께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인사동에서 제1회 개인전을 열었다.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좋아 동네에서 작은 화실과 독립 책방을 겸하는 문화 충전소 '파란미술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박선화 작가의 채색 가이드

인천 서구에는 크고 작은 공원이 많다. 서구에 정착한 지 20여 년, 이렇게 좋은 녹지 덕분에 풍족한 자연을 누리며 살고 있다. 특히 청라국제도시가 개발되면서 서구는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더욱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나고 있다. 청라성당은 점심시간 공원 산책을 하다 보면 항상 눈에 띈다. 볼 때마다 공원과 성당이 참 잘 어울리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녹지와 건축물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것처럼, 사람도 서로 이해하고 보듬으며 어울려더울려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 ▷ 2023년 2월의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김공희 미추홀구 낙섬동로



송준순 부평구 화랑로



심예지 서구 비즈니스로



정양분 부평구 화랑로



정재영 서구 봉오재로

## ▷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

① 우편: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공보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② 이메일: goodmorningic2023@naver.com

기간: 2023년 3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 인천시민의 시선

**이영희** 부평구 굴포로



인천도호부관아에서 열린 정월대보름큰잔치에 다녀왔습니다. 풍물놀이 공연에 어깨를 들썩이고 연날리기와 윷놀이 실력을 뽐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불어 올 한 해의 행복과 소망도 빌었습니다.

#정월대보름큰잔치 #풍물놀이 #연날리기 #윷놀이 #전통체험

**박태규** 연수구 한진로



인천에 살아 좋은 점 중 하나는 이렇게 드넓고 빛나는 바다를 가까이에 두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주말을 맞아 아이들과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소중한 추억을 가득 만들었습니다.

#을왕리해수욕장 #드넓고빛나는바다 #인천에서니좋다

**김형숙** 연수구 만우금로



인천도시역사관에 가보았습니다. 다양한 볼거리가 많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둘러보았는데, 특히 도시의 모형을 보며 다시 한번 인천이 정말 크고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천도시역사관 #크고아름다운인천 #다양한볼거리가득

**나해수** 중구 신포로



겨울의 끝자락, 추위가 누그러진 틈을 타고 홀로 개항로를 다녀왔습니다. 한가로운 오후에 이국적인 풍경을 만끽하며 이 평화가 오래도록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개항로 #한가로운오후산책 #이국적인풍경포착

당신의 시선이나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 ① 일상의 인상적인 순간을 포착해 사진으로 찍는다.
  - ② 짧은 메시지와 함께 이메일로 보낸다.
- 보낼 곳: goodmorningic2023@naver.com  
기간: 2023년 3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 지면에 사진이 실린 시민께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신선한 재료에 영혼 भरु려 만든 요리를

어떻게 만들면 인천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천시민들이 인천 시정에 공감할 수 있을까. 인천에 대한 자긍심과 애郷심을 심어주는 콘텐츠는 무엇일까. 인천에서 30년 넘게 매체 제작자로 일해 왔지만 잡지를 만드는 일은 매번 새롭고 어렵습니다. 글과 사진, 영상 기반의 콘텐츠로 제작하는 매체는 제작자가 볼 때는 흐뭇하고, 독자는 감동을 받아야 잘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 그 감성을 건드리면서 디지털 매체 수요에 대한 욕구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독자와 인천시민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충족하기 위해 매번 신선한 재료(취재)를 찾아 맛있게 요리(콘텐츠 가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독자들의 입맛에 맞을지가 늘 염려스럽습니다. 아무튼 이번 호도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맛이 좀 덜하더라도 맛있게 드셔주시길 바랍니다.

- 公明 김진국 -

## 보다, 우리의 얼굴을

인천은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仁<sup>인</sup>에는 두 사람이 있고, 川<sup>천</sup>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인천은 우리 모두의 도시입니다.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발 딛고 머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천 사람입니다. 인천에서 추억 한 자락, 사랑 한 자락을 품고 살아간다면 누구나 인천 사람입니다. 그 안의, 그 누구의, 그 어떤 삶도 소중합니다.

‘더 인천 : 사람’의 이 번 호 기획 테마는 ‘인천의 얼굴들’입니다. 다른 듯 닮은, 네가 아닌 나, 바로 당신의 얼굴,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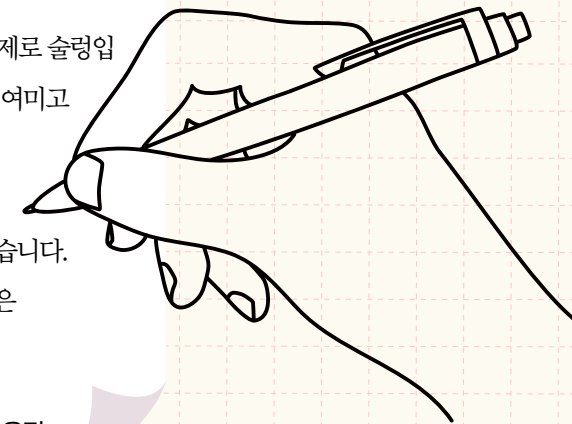
- ‘사람으로 인천을 봅니다’ 정경숙 -

##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사는 아름다움

배다리에서 도원역 뒤편 비탈진 언덕으로 이어지는 ‘쇠뿔고갯길(우각로)’. 제물포항에서 서울 가던 옛 경인가도 京仁街道, 일제강점기 민족의 앞날을 밝힌 길, 지난 한 세기 공동체를 따스히 품은 비탈길이 새 시대의 질문 앞에 놓였습니다.

배고프고 남루한 시절, 향학열 向學熱에 불타던 우리 민족을 품은 배움터가 이전 문제로 술렁입니다. 문방구, 책방, 의상실, 인쇄소... 그 앞을 평생 지킨 상인들은 각자의 믿음을 여미고 새로움을 모색합니다. 길 건너 달동네는 옷을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비탈을 감아 내리며 다닥다닥 붙어있던 500여 채 삶터가 황토빛 흙더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꽃샘추위에 코끝이 시리게 추운 날, 그 길에서 종일 인천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각’은 달라도 ‘마음’은 같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빛나는 내일을 살고 싶은 아름다움을 그 길에서 봅니다.

- 쇠뿔고갯길(우각로)에서, 최은정 -





# 팔미도등대 ‘120년 불빛’과의 대화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팔미도등대

두 개의 섬이 마치 ‘八’ 자 모양으로 뻗어 내린 꼬리처럼 보여 이름 붙여진 팔미도. 연안부두에서 유람선 타고 50분이면 도착하는 13.5km의 거리. 한 시간 정도면 섬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만큼 팔미도는 아담하다. 팔미도는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이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섬이었다. 다만 조선 후기 김정호가 만든 지도 ‘청구도’엔 팔미(八耒로, ‘대동여지도’엔 팔산(八山)으로 표시돼 있다. 낙조를 받으며 돌아오는 배의 모습이 아름다워 팔미귀선(八尾歸船)이라고 불리며 인천팔경의 하나로 꼽히던 명승지였다.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섬에 등대가 들어선 때는 1903년이다. 개항기 우리나라를 넘보던 서구 열강들은 이양선을 앞세워 인천으로 밀려든다. 새로운 침탈지로 정치·경제적 거점을 삼는데 개항장 인천만큼 적당한 곳도 없었다. 팔미도는 인천으로 가는 바닷길의 중요한 지점에 위치했고,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섬이었다. 가장 먼저 마수를 뻗친 나라는 일본이다. 개항하던 해 일본은 조선 조정과 체결한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에 등대와 초표를 설치한다는 규정을 명시한 터였다. 조선이 저물어가던 1901년, 일본은 규정을 들어 등대 건설을 촉구한다. 일본의 등쌀을 견디지 못한 조선 조정은 1902년 인천에 ‘해관 등대국’을 설치하고 팔미도, 소월미도, 북장자 등대와 백암등표 건설을 시작해 1903년 6월 완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는 그렇게 불을 밝혔다.

47년 뒤인 1950년 9월, 팔미도에 특명이 떨어진다. “9월 14일 밤 12시 정각에 등대를 밝혀라.” 비밀리에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하던 도쿄(東京) 유엔군 총사령부가 팔미도에 들어가 있던 한국 부대 ‘켈로(Korea Liaison Office, KLO)’에 등대 점화 명령을 하달한 것이다.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점등이 었다. 영흥도를 중심으로 첩보 활동을 벌인 켈로 부대원들은 비밀리에 팔미도에 잠입해 그 시각 등대에 불을 밝혔고, 이튿날 새벽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10만 병력과 대함대는 인천상륙작전을 전개한다. 이를 계기로 북한군에 밀리던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됐고, 13일 만에 서울 중앙청엔 태극기가 휘날린다. 팔미도등대는 시설이 낡아지면서 건립 100주년이던 2003년 운영을 중단한다. 같은 시기 그 옆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등대가 들어섰다. 새로운 등대는 최대 50km까지 바닷길을 밝혀주고 위성항법 보정 시스템으로 날씨와 연안 해상을 관측하는 기능을 갖추었다. 팔미도등대 120주년 기념일인 오는 6월 1일 팔미도등대의 불이 다시 켜진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날 등대에 불을 밝히는 이벤트와 함께 초등학교생들을 초청, 일일 등대장 프로그램과 등대 사진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의 수난, 한국전쟁 등 풍파를 겪으며 인천, 대한민국의 안녕을 지켜낸 팔미도등대. 올봄엔 이 등대를 찾아 ‘120년의 대화’를 나누어도 좋을 일이다.



## 봄길 그 바다

봄바람 타고

푸르스름 잔물결  
밀려오는 바다

따사로운 감촉  
바닷새들의 울음소리  
햇살 조각 윤슬로 떠다니는

노을이 질 때면  
수줍던 너의 얼굴

너와 나  
함께 바라보던  
봄길 그 바다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